

발행인 칼럼

서곡(序曲)에 성공하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는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3막에서 가슴 저미게 울려 퍼진다. 이 오페라 전체를 열어가는데 서곡이 있다. 서곡에 "나부코" 주제의 선율이 담겨 있다. 왜 "나부코"만 그런가. 모든 오페라에는 서곡이 있고 그 서곡은 짧은 시간 동안 오페라 전체를 감지(感知)하게 해준다. 설교에서도 그렇다. 모든 설교는 서론(序論)이 있고 그 서론을 통해 그날의 설교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설교에 음악에 그리고 모든 소설, 드라마 등에 반전(反轉)이 있기도 하지만 그 반전조차 서론과 서곡, 그리고 소설과 드라마의 첫 이야기 중에 알듯 모를듯 한 복선(伏線)이 숨겨 있다.

"행복을 팝니다"라는 간판을 걸고 신장개업(新張開業)한 가게가 있었다. 한 여인이 잔뜩 기대하고 그곳에서 들어가 행복을 큰 것으로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었다. "아니, 행복을 큰 것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것을 주면 어떡해요?" 주인은 말했다. "우리 가게는 행복의 열매가 아니라 행복의 씨앗을 팔고 있습니다." 행복의 열매는 행복의 씨앗으로부터 거둔다. 진실한 열매를 진실한 씨앗에서 출발한다. 씨는 뿌리지도 않고 열매는 갖겠다고 하지 말자. 씨를 심어야 거둔다.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은 곳에서는 결코 팥이 나오지 않는다. 미움을 심은 자가 어찌 사랑을 거두겠는가. 기쁨을 심은 자가 어찌 우울을 거두겠는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계속 뿌리면 그것이 습관들이 될 것이요 그런 습관들이 만들 열매는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올해의 삶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은 겨울 때가 아니다. 심을 때다. 무엇을 심든 그것을 거둘 것이다. 지금 심는 것을 서곡이라 할 수 있다. 모두의 서곡은 연주되고 있다. 어떤 서곡인가. 너무 처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처음부터 결론을 내듯이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일단 1월에 전개되는 서곡이 잘 연주되어야 한다. 나의 서곡 속에 나의 올해의 많은 모습이 담겨 있다. 아름다운 일 년을 만들자. 멋진 한해를 일구자. 웅장한 서곡을 가진 오페라가 결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발랄한 서곡이 설움과 탄식으로 이어지는 선율을 만들지 않는다.

기뻐하자. 탁월한 지휘자를 만난 연주자가 그러하듯이 우리 모두 기뻐하자. 2022년 "사계(四季)"라는 작품을 연주하실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 탁월한 그의 숨씨를 확산하며 그의 손가락에 주의를 기울이자. 내 맘대로 점점 빨라져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쉬어도 안 된다. 주님의 손끝을 놓치면 듣기 싫은 음악이 된다. 주님의 섬세한 지휘를 따라 서곡부터 시작하여 올해의 연주를 잘 마치자.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선 하늘나라 청중들이 감동하여 기립박수 칠 정도도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지휘자 주님을 잘 따르는 데 있다. 서곡이 시작되었다. 자신의 서곡에 귀를 기울여 보라. 아름다운 서정적 서곡이든 의미심장한 서사적 서곡이든 그 서곡 안에 나의 일년이 이미 짙게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서곡에 성공하라.

미 의사당폭동 1년, 민주주의가 불안하다!

미 언론,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국사회 양분화 현상 보도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미국인들은 1년 전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로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다.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까지도 서로 다른 동상이몽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미국은 이데올로기

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 덕에 끔찍할 정도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 6일, 1200여명의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연방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외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공격당한 1·6 의회 폭동 사태는 미국의 위상과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1년이 흘렀지만 미국은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3명 중 1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 분열은 심화되고 있다.

수치스러운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퓨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아시아·유럽 17개 선진국 시민 대상 여론

를 설치하려는 노력이 공화당 반대로 무산되자 하원에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최종 보고

고브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월 6일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자의 85%는 '반란'이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56%는 '자유 수호'라고 답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특별 기고문에서 미국이 1·6 사태로 충격을 받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양극화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기대했었으나 1년이 지났음에도 선거를 부정하고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은 계속 미국인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Jimmy Carter: I Fear for Our Democracy).

진상규명 하원특위, 중간선거 전 최종보고서 발표예정
원인: 부의 양극화, 여론의 양극화, 정치인 포퓰리즘

리는 날이였기 때문이다. 수천명의 군중이 백악관에서 2.6km 거리에 있는 의사당으로 몰려갔다.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일부가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대피하지 못한 일부 의원과 직원들은 회의장에 몸을 숨기고 공포에 떨었다. 경찰관 1명과 시민 4명 등 5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민주주의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라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정부 간 기구인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국제기구(IDE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 글로벌 민주주의 상태' 보고서에서 미국을 '민주주의 후퇴국'으로 분류했다.

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역사의 종언'을 쓴 석학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시 '1·6폭동,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시켰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염려하고 있다(One Single Day. That's All It Took for the World to Look Away From Us).

이 사건은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장치인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세계 각국에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미국은 이제 동맹 및 우방국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처지가 됐다.

1·6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은 정치권과 수사당국에서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먼저 민주당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 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이 절반을 차지한 상원은 그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통한 정치적 단죄 노력에 돌입했다. 상·하원 합동으로 초당적 위원회

FBI와 검찰도 가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700여명이 경찰을 공격, 의회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중 150여명은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관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에 모아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6사태 전후로 백악관에서 생산된 자료의 특위 제공을 막고, 증언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저항하고 있다.

후쿠야마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역사의 종언'(1989년)을 쓸 당시 '두 가지로 간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후쿠야마는 '소련·동구권의 몰락으로 서구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통찰력에서 '마르크스적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다. 그런데 33년이 지난 지금 보니 예상 못했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는 아직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CBS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뉴저지 Tel. (201) 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탁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서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www.rptseast.org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2022학년도 봄학기 입학안내 (주. 야간)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2년 1월28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2년 1월29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2년 1월31일(월) - 2월2일(수) 저녁7시45분
문의처: Admission Office / 학감, 교무
143-17 Fl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학감 경기태 목사: 917-733-7387
사무실: 718-463-7163 / www.rptseast.org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 전형료 (\$3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포스트 팬데믹 한파...

(1면에서 계속) 소규모 종교기관도 지상의 부를 재산에 의존한다. 사원, 회당 및 모스크는 모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공식적인 종교 출석이 감소하고 현금도 함께 감소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다. 영국의 교회 건물은 지난 10년 동안 연간 200개 이상 비용이 초과됐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백 개가 더 팔리거나 철거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수만 개의 건물이 영원히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 유대교 회당의 거의 3분의 1이 지난 20년 동안 문을 닫았다. 거대한 붉은 벽돌 고딕양식의 건축물인 베를린의 성모마리아교회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프레스코화 와 석조 부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좌석은 텅 비어 있다. 회중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줄어들고 있다. 교회의 루터교 목사(Gregor Hohberg)는 젊은 베를린인들에게 여전히 "종교적 필요"가 있지만 요가수업과 명상그룹에서 그것을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들이 교회가 동성애자 가족을 환영하고 많은 목사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대부분의 독일인이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말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유틸리티 비용과 긴급 수리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영국 성공회는 향후 5년 동안 수리를 위해 2020년 연간 수입의 7배

가 넘는 10억 파운드(13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국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패배했다. 미국에서는 건물과 관련된 비용이 교회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전국의 교회는 필요한 것보다 80% 더 많은 공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터넷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2020년 캔터베리 대주교의 온라인 설교는 약 500만 명이 들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유행 이전 영국에서 매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의 5배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온라인 참여에는 대가가 따른다. 신자들이 방문을 중단하면 고대 교회건물이 쓸모없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이전보다 빠르게 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를 모색하고 있다. 천국을 찾는 신앙 지도자들은 좁고 녹이 부패하는 땅에서 부동산 자산을 팔거나 임대함으로써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여호와의증인은 전단과 잡지인 '파수대'를 인쇄하던 영국 본부를 매각했다. 30개국에서 150,000명의 매주 예배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호주의 대형교회인 힐송은 주일예배를 위해 극장, 영화관 및 기타 장소를 임대하고 있을 정도다. 한편 신성한/거룩한 재산과의 이별은 여색할 수 있다. 2020년에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티루말라에 있는 유명한 힌두교 사원인 벤카테스와라의 감독자들은 회원들이 기부한 수십 개의 "살아날 수 없는" 자산을 경매하려고 시도한 이유로 "반힌두교인"으로 낙인 찍혔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보다 급진적인 접근방식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즉 교회가 스스로 변형할 수 없다면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것이다. 몇 달 전 목회자에서 컨설턴트로 전환한 탐벌린(Jim Tomberlin)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근처의 한 교회에서 50명도 채 되지 않는 신도와 450,000달러의 건물 담보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해당 지도자들은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다른 교회와 합병하기를 원한다. 이 교회에는 1000명의 교우가 있고 건전한 대차대조표가 있다. 교회가 병합되는 추세는 코로나19 이전에 시작됐지만 그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예산이 빠듯하거나 목회자가 떠나면서 신학이 아니라 행정에 의해 촉박된다. 그러한 통합은 로마카톨릭교회들 사이, 회당 사이, 그리고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미국의 주류 개신교 교회에서 흔하지 않다. 여느 사업과 마찬가지로 두 교회가 결합하면 지도자가 충돌할 수 있고, 문화적 변화가 교인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공동 재정이 항상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교회 합병에서 약한 쪽이 추종자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 동안 합병을 겪은 거의 1000명의 교회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5분의 1이 연합 1년 이내에 교회의 40% 이상을 잃는다. 그러나 2000명 이상의 정기 참석자와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가진 약 1,750개의 개신교 "대형교회"가 생겨났다.

일부는 합병의 결과다. 대형 교회 전문가인 미국 목사 워렌 버드(Warren Bird)는 교회 간의 좋은 결합은 성공적인 결혼과 같다고 말한다. 양쪽은 합병에 자신의 선물을 가져야 하지만 변성하는 교회와 결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는 단순히 삼켜질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는 확실히 경건한 기둥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업적 자산과 영적 자산을 동시에 앗아가게 만들었다. <2면에서 계속> 첫째는 사회주의국가 혹은 후진국이 제대로 된 민주적 선진정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대표적인 예다. 둘째로, 기존의 선진 민주국가 정치가 쇠퇴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국이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1·6폭동은 미국 민주주의 쇠퇴의 결과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의 촉매가 됐다는 지적이다. 후쿠야마가 진단한 원인은 양극화다. 세계화에 따른 부의 양극화, IT혁명(특히 SNS)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SNS로 가짜정보들이 확산되면서... 서로 다른 팩트를 믿기에 소통이 단절되고... 선동가형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포퓰리즘이 횡행한다는 분석이다.



시론

코로나 감염을 지나며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2021년 성탄절을 보낸 후 유쓰그룹에서 3박4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백신주사를 맞은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련회를 다녀온 학생 중에서 돌과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교회적으로 만나게 된 긴급하고도 어려운 상황을 2주 동안 보내며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어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급하게 수련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과 사역자들로 하여금 PCR 테스트 및 자기가격리를 요청했습니다. 비록 자가 키트에서는 음성이나 오히려 PCR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후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게도 절대다수의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부모님들이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고 비로소 주일예배에 참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이번 일을 만나면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정리하면서 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감염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갖게 되는 '예배'와 달리 수련회는 잠을 자고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감염될 경로가 많아지게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백신접종을 마친 학생들도 제한을 하긴 했지만 백신을 뚫고 들어온 돌발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백신접종을 신뢰하고 추진했던 결과가 우리에게 많은 실망감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1월 중순에 계획되었던 또 다른 수련회는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둘째는 감염되었을 경우 함께 마음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염을 원하거나 자신이 감염자일 줄 알면서 참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희생자에 해당됩니다. 그러기에 감염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쉽게 감정적인 언어나 비난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유쓰그룹 학부모님들이 보여준 사랑과 위로와 협조의 모습은 참으로 고맙고 아름다웠습니다.

셋째는 빠른 정보의 교환입니다. 수련회 참가 후 감염된 사실을 안 다음 곧바로 자가진단 키트 구입과 PCR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약국정보를 학부모회가 공유해주었습니다. 최근 급증세에 이른 감염자들로 인해 자가진단 키트 구입과 PCR 테스트 일정잡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형약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자가진단 키트나 PCR 테스트 일정을 우리 주변의 규모가 크지 않은 약국에서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빠르게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는 우리 안에 남게 될 기억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현상임을 알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따뜻함으로 인도하는 글과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 남을 것입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코로나 감염은 2-3주 내에 해결되고 정리될 일임에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상대를 아프게 하는 글을 남김으로써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도 그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남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말과 글은 분명히 신중해 질 것입니다. 감염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사랑의 기억으로 바꾸어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한다면 오히려 이 시기가 서로를 세워주는 축복으로까지 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감염의 시기를 지나면서 코로나를 피해갈 수는 없더라도 코로나에 의해 우리의 영혼과 교회가 유린당하기보다 감사와 돌봄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hankschoi@gmail.com

RCA교단 보수적 교회들 ARC로 이동

새해 들어 43개 교회... 성소수자 안수, 동성결혼 이유 RCA(Reformed Church in America) 교단이 성소수자 안수와 동성결혼을 이유로 분열되고 있다. RCA 교단에 속한 43개 교회가 새해 첫날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목사안수에 관한 신학적 차이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고 ARC(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교단으로 갔다고 7일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보도했다. ARC(Alliance of Reformed Churches)는 RCA에 있었던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이 지난해 5월에 만든 새로운 교단이다. ARC 교단 관계자는 다양한 교단의 최소 125개 교회가 ARC 가입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RCA 교단은 1천개의 교회와 20만 명 미만의 교인이 속한 작은 교단으로, 43

개 교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RCA는 교단의 생존을 염려하게 됐다고 크리스체너티투데이는 보도했다. 특히 또 뉴욕에 있는 한 RCA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교단에 재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 온 보수적인 교회들의 탈퇴는 RCA 교단을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과 뉴저지에는 한인 교회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10월에 열린 RCA 교단 214차 총회에서는 성소수자(LGBTQ) 안수와 동성결혼을 놓고 분열하는 교단의 구조조정을 위한 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RCA를 떠나는 교회들이 자산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갈보리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안디옥교회, 알칸사 제자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시간은 곧 인생이다

시간은 기다릴 때는 한껏
능장을 부리고 조급할 때에는
손살같이 날아가 버린다. 시간
은 도무지 우리의 손안에 잡
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선다. 남녀노소와 신분귀
천이 없다. 사람마다 갖는 시
간의 양은 일정하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440분이며, 초로
환산한다면 86,400초이다.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
해서 초당 \$1로 환산을 한다
면 하루는 \$86,400이다. 매일
매일 이만큼의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 누구나 금세 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
간이라는 돈은 결코 저장이 되
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
간의 귀중한 돈은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하루가 지나면 자동
으로 빠져나간다. 심지어는 잠
자는 시간에도 빠져나간다. 그
리고 다음 날 어김없이 정확하
게 다시 입금이 된다. 따라서
이 시간이라는 황금은 그 때
그 때에 최대한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
라지고 만다. 그러나 단 돈 \$1
이라도 요긴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투자하는 만큼의
합리적인 인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 결국 인생의 행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이 시간이라는
보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정하게 된다.

평생도록 시계만 만들어온

장인이 있었다. 이 장인은 연
로하여 더 이상 일할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 시계제작에 몰
두었다. 그리고 완성된 최후의
작품을 자신의 뒤를 이어갈 아
들들에게 주었다. 아버지의 마지
막 시계를 받아들였던 아들이
시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초침은 금으로, 분침은 은으
로, 시침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다. “아버지, 초침보다 시
침이 금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
는 이렇게 대답했다.

“초침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작은 것이 바로 되
어 있어야 큰 것이 바로 가지
않겠느냐? 초침의 길이야말로
황금의 시간이다. 1초를 아
껴 살아야 한다. 그 순간처럼
지나는 그 1초가 결국은 세상
과 인생을 결정한다.”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벌수
가 있겠지만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벤자민 프랭
클린은 “시간은 생명이니
(Time is life). 인생을 사랑한
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시간 그 자
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시간의 길이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길이와 동일하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야 할
시간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
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이
와 빠름을 이렇게 설명한다.
다윗은 우리의 날이 한 뼘 길
이만큼 짧고(시39:4), 야고보
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
개 같고(약4:14), 모세는 밤의
한 순간 같다(시90:4)고 했다.
또한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베를의 북보다 빠르고(욥7:6)
빠른 배처럼, 먹이에 날아내리
는 독수리 같고(욥9:26) 신속
히 날아가는 새처럼(시90:10)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기록하
고 있다.

대통령 오바마와 그의 고교

단짝 친구 가쿠카와가 호놀룰
루 푸나호우 고등학교 농구장
옆에 앉아 있었다. 오바마는
흑인 혼혈이었고 그 친구는 일
본계 혼혈이었다. 둘 다 희망
을 버렸고 자신들을 천사하는
세상을 향하여 욕하며 마약도
즐겼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시
간이 흘렀을 때 오바마는 대통
령이 되었는데 그의 친구는 노
숙자로 살다가 불법자로 체포
자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 동일한 환경과 상황
에서도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난
극명한 샘플들이 되었다.

이제 시작된 또 한 해의 출
발선에서 모세의 가르침대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
혜로운 마음을 얻어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시간이 곧 인생
임을 확인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이병은 목사
(한인삼일장로교회)

어렸을 때 시냇물을 건너고
위험한 산길이나 낭떠러지를
걸을 때 부모님들이 “내 손 꼭
잡아, 놓지면 큰일 나!” 하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차들이 많이
다니는 건널목을 건너고 또
사람들이 많은 시장을 갈 때
면 언제나 “엄마 손 꼭 잡아!”
하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
다. 이런 말들은 부모들이 아
직은 어려서 사고나 위험을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는 아이
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
하게 지키기 위한 부모님들의
배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 얼마
나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어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
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
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
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예
수를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
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
가 이 명령을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히3:6, 히3:14, 히
10:23)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
슷한 표현은 수도 없이 나오
니다.

같은 표현을 저자가 한 책
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는 것은 저자가 그것을 강조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강
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입
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오직 영혼
의 주인 되신 예수님밖에 없
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
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2022년 새로
운 한 해가 선물로 주어졌습
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
무나 큰 위험과 어려운 순간
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무엇
을 붙들고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
에 없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굳게 붙들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1: 광야 길을 걷고 있기에

그 이유는 신자들이 광야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굳
게 잡을지어다’라고 권면할
때 이 권면이 아무런 배경 없

이 불쑥 튀어나온 것은 아닙
니다. 저자는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배경으로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
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
에서 말한 내용을 전제하고 그
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
하기에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앞에 나오는 3장과 4장을 살
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
용이 비교적 길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
럼 애굽의 종살이, 죄의 굴레
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
러나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가
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는 저
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
아갑니다. 신자들이 예수를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는 광
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종
일 햇볕이 내리쬐는 곳입니
다. 밤에는 기온이 푹 떨어져
서 겨울과 같이 추워지는 곳
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
습니다. 불 뱀과 전갈이 도사
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 말하는 이 광야를 이렇게
물리적인 광야로만 이해할 필
요는 없습니다. 광야를 걷는
신자를 분향을 찾아가는 나그
네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나 지금이나 나그
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
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정체성
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국
을 떠나 미국에 이민자로 살
아가기에 나그네라는 말이 아

닙니다. 한국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도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영적이고 신학적
인 진단입니다. 이렇게 나그
네요 순례자로 살아가기 때
문에 필수적으로 뒤따른 것은

수고와 고난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이 아무리 유
익하고 즐거운 것이긴 하지만
그에 따르는 수고와 고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수고
와 고난이 신자들에게 예수를
굳게 잡지 못하고 오히려 놓
아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궁
극적인 시험과 맞닿아 있습니
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려하
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수고가 불신으로, 이 고난이
종교 배반으로 연결되지는 않
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를
향하여 믿는 도리를 굳게 붙
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유 2: 예수는 우리를 도
와주실 수 있으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하
는 또 다른 이유가 15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기 때
문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
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
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또 같
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마음이 차갑고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
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마음
이 따뜻하고 인종과 인종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
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충

분히 동정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
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
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
한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동
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
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
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세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동정은 대부분은 속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고 표면
적으로만 동정하는 것에 그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
만 예수님의 동정은 이것 이
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
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가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
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은 사람

이 세상을 사셨으며 그 사신
동안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을 뿐만 아
니라 더 큰 아픔 더 큰 고난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낳고 친한 말기유에서 태어
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고
픔은 기본이고, 냉대, 질사, 무
시, 욕먹음, 사랑하는 제자들
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결
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
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지나 라고 하는 작가가

가 없는 사람이 있다. 건드려
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이 있
나. 찾아봐! 힘들지 않은 사람
있다. 쪽 짜봐! 슬프지 않은
사람 있다. 털어봐! 아프지 않
은 사람 있다.”

팬데믹의 상황에 광야와 같
은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모
두의 형편이 이와 같은 것입
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
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
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꼭
붙들라.”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예수’
아닌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명목상으로는 신자인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
는다고 하면서 적당한 타협하
며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경
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무기력한 그리
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
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어떤 거룩한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
들이 많이 모인 교회를 통해
서는 어떠한 당신의 뜻도 펼
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새해에 오직 예수만
굳게 붙드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hope2c@hotmail.com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히브리서 4장 14절

의 동정과는 차원이 다른 것
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를 체휼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이 있다. 살펴
봐! 고민 없는 사람이 있다.
가까이 다가가 봐! 삶의 무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선택하여 1년 구독료를 후원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	
구독자 이름 (대금 지불처와 동일)	한글 : _____ 영문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제 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문
전화번호/Fax	() ()	() ()
제 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m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209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k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mychpress@gmail.com

예배의 회복과 축복

성경은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한 축복으로 가득하다. 예배, 말씀과 기도의 참된 예배자로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면, 참된 예배자 히스기야가 등장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써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했는가?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말씀의 은혜에 미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는 당시 '국보 제1호'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의 뿔뿔을 '느후스단' 즉, '씻덩어리'일 뿐이라면서 그것을 부수어 버린다. 이유는 한가지다.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받들어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또한 그는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 한국의 서

는 일이면 어떤 일이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대책 없이 감당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대책이 되어주셨던 것이다.

성경은 신자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신자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며(?) 대책 없이 행할 때 하나님의 손과 발이 급해지시는 것이다. 대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지하고 나아가는 저들을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책임을 다 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주셔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에 스스로 신실함을 지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을 따름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을 선택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진 것인가?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당신이 쓰시는 말씀의 종을 예비하시는 데, 당시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의 시대를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실재를 보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의 말씀들이 히스기야의 귀가에 들려졌던 것이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가 아들을 인신 제사하는 환경 속에 자랐어도 그의 귀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이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려졌음을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어디서 그런 증거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는 그 후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으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볼 때,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추론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등장한다. 스가라의 딸 아비아를 말한다.

뒷받침하지 못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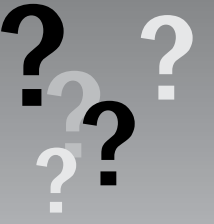
오직 한 가지, 무엇이 있으면 되는가? 히스기야처럼 그 귀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히스기야 그는 그런 배경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히스기야

스기야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말씀과 은혜의 공급이 계속해서 그에게 끊임없이 주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주의 전을 찾는 것을 본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과 밀접하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은혜와 축복의 일들이 그의 삶에 온전하게 드러난 것을 본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만한 영적자세를 가진 은혜의 사람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에 '2022년 임인년 호랑이해'란 단어를 사용해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글렌데일에서 Noh

A: 좋은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에는 예수 2022년이지 2022년 임인년 호랑이해에 등 다른 용어 사용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띠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설교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 용어입니다.

류준배 목사가 쓴 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간지는 자(子·쥐), 축(丑·소), 인(寅·호랑이), 묘(卯·토

교회에서는 '2022년 임인년 호랑이해' 사용불가

끼), 진(辰·용), 사(巳·뱀), 오(午·말), 미(未·양), 신(申·원숭이), 유(酉·닭), 술(戌·개), 해(亥·돼지) 순으로 정리돼 있다. 이런 순서가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 기록을 찾아보면 '석가유래설' '유교황제설' 등의 기록에 나오는 설화가 있다고 한다. 아주 옛날에 하늘님(석가유래설에서는 석가)이 못집승들을 소집하고 "정월 초하루 아침에 세 배하러 와라. 빨리 오면 1등상을 주고 12등까지는 입상하기로 한다"고 했다고 한다. 많은 동물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며 초하루에 있을 경주를 준비했다. 하지만 달리기 경주라면 소는 자신이 없었다. 말이나 호랑이에게는 어렵도 없고 개에게도 앞서지 못할 것이다. 궁리 끝에 소는 남보다 일찍 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소는 남들이 다 잠든 그믐날 밤에 길을 떠났다. 덩치 큰 동물들 사이에 끼어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던 쥐 역시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 가장 열심히 운동하는 동물의 턱을 보리라 마음먹었다. 눈치 빠른 쥐는 소의 계락을 알아채고 마구간으로 잠입해 소소리에 붙어 있었다.

드디어 동이 틀 무렵 소가 하늘님의 궁전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쥐는 날쌔게 소의 한발 앞으로 뛰어 내려 가장 먼저 문안에 들어갔다. 밤낮없이 끈기 있게 달린 소를 제치고 1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 점을 보면 쥐따라고 하면 꾀가 많다고 반드시 말한다. 1등은 다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호랑이는 천리를 쉬지 않고 달렸지만 3등이 됐다. 달리기엔 자신이 있는 토끼는 도중에 낮잠을 자는 바람에 4등이 됐고 그 뒤를 이어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차례로 하늘 문에 들어서 입상하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12간지는 불교나 유교에서 설화로 사용하고 운세와 공합사주, 토정비결에서 이 12띠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에 성도나 교회가 사용하는 것을 옳지 않은 금기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서 황금 돼지의 해, 혹은 호랑이해 라고 말하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용어 사용이라고 봐야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에 BC와 AD가 생기기에 차라리 예수 2022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 봐 외부출입을 폐하면 감기로부터는 자유할지 모르나 당장 방안에만 앉아있으면 우울증, 허리통, 공황장애, 부부갈등 등등의 기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심하는 생활은 필요하겠지만 할 일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새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쳐줄 것처럼 델타, 오미크론 등등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확인할 헬라어는 이것 한 가지가 아니겠는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 알면 우리는 새해에도 여전히 할 일을 하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운데 나아가고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갈 때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상술한 히스기야처럼 아름다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에서 위드 지저스로 나아가며 새해에도 여전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 '여전히 한결같은 삶과 분별력'을 통해 승리하는 소중한 날들이 되기를 기도 드린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교회, 세상과 삶의 축복 3

-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

원이나 향교처럼 당시에 정치지도자들의 아지트처럼 여겼던 그런 곳인데, 그것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가만히 두면 조용할 일을 애써 분란 거리를 만든 것이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당과 하나님의 전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모세의 뿔뿔이 어떤 것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평 중에 물을 찾다가 불뿔에 물려 죽게 되자 모세가 뿔뿔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물이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바로 그 뿔뿔을 단번에 해치워버렸다는 것이다. 씻덩어리로 여겨 한방에 부숴버린 것이다. 아무리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저 씻덩어리에 불과한 헛된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책 없이 순종해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산당을 제거하니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그는 거침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실행해 버린다.

주의 영광, 믿음의 대책

그렇게 일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고 평탄하도록 축복했다고 성경은 증거 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

을 했을 따름인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게 된다.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한분을 기쁘시게 함으로,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찾고 찾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이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충성을 감당했던 히스기야는 과연 그럴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히스기야 앞에 왕이 누구인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야하스이다. 야하스는 어떤 왕인가? 그는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잡아다가 인신 제사를 드릴 만큼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야하스를 쳐서 죽게 하니까, 갑자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그가 바로 히스기야였다. 신기한 일이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악행을 보면서 자랐을 텐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찾는다면 그가 행한 일들은 적절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분명히 그의 귀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들은 그 말씀들이 삶의 척박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불같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떻게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역했던 소선지자 스가라와 다른 사람이다. 스가라의 딸이라는 말과 그 이름이 아비아라고 특정해서 말하는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의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의 영향력이 극악무도한 남편으로부터 그 아들 이사야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현실을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마침내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어려운 개혁적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씀의 통로만 열려있으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야하스는 어떤 면에서 영터리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지라도 좋은 말씀의 선생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경 속에서도 히스기야를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한마디로 환경이나 배경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아버지가 어떠한지라도, 자식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신 말씀을 따라 불같이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주신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왜 술을 못 끊느냐?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알코올이 흐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못난 인생이 있다. 영향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불같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떻게

특히 앗수르 대군의 침공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는 성전을 찾았다. 성전에서 저들의 조롱하는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다. 위기의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변별할 수 있다. 혹자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자기방어를 한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전을 찾는다. 주의 전에서 기도한다. 주의 전에서 문제해결을 시작한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주님의 교회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쪽으로 모여질 수 있는 사람, 그는 환경을 핑계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넉넉히 가진 사람이 되고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권안에 머물며 마침내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2022 새해도 여전히

새해가 밝아도 코로나, 델타 변이 오미크론 등의 헬라어 알파벳이 회자된다. 감사하게도 오미크론은 계절성 독감수준으로 떨어져 코로나시대를 마감하는 징조가 된다는 좋은 소식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New Normal - Life, 새로운 삶의 표준을 가지고 대응하고 살아야 할 때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주변에 방어벽만 쌓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에 불과하다. 겨울에 감기 걸릴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시대가 어려울수록...”

지금은 살아 있는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 있는 물고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죽어있는 물고기를 연상해 보십시오. 죽어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강물을 따라 떠

내려갑니다. 죽어있는 물고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근거는 생명이 있기 때

문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의 조류에 대항할 용기를 상실한 채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여져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조류에 순응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엉뚱한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조류에 순응해가는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게 퍼져있다고 봅니다. 그 범위가 넓고도 견고하게 퍼져있어서 이미 그것이 상식이 되어있고 정상적인 기독교적 현상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라(마5:48)’, ‘주의하라(엡5:15)’,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출23:2)’라고 명령하십니다. ‘온전하라’, ‘주의하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시대적 조류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즉 시대적 조류가 점점 악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온전하기를 힘써야 하고, 더욱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관해서 주의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 군중의 흐름에 따라 삶의 가치와 태도를 취하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여 군중의 흐름을 따라 삶의 가치와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여 군중의 흐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기도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화려한 길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시대는 종종 얼어붙은 겨울 땅처럼 점점 냉랭해져 가고 있고 점점 안고해져가고 있습니다. 추울 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기입니다. 종종 얼어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뜨거운 성령의 열기입니다. 종종 얼어붙은 시대를 이성 능력으로 걸어가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이성은 종종 얼어붙은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종종 얼어붙은 시대를 이겨내게 하는 것은 뜨거운 성령의 열기입니다. 종종 얼어붙은 시대를 대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저앉히려는 사탄의 핵심전략은 이성의 능력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능력으로 대처하면 그 이성은 어느 지점에 가면 한계에 부딪히면서 주저 앉기 때문입니다. 종종 얼어붙은 시대를 제압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끊이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계속 끊이지 않으면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흉내 내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세상이 시도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대의 조류와 반대 길을 걷는 셈입니다.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끊임없이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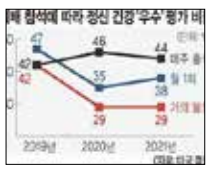
타오르는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식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서 걸어갈 용기와 의욕이 상실되면서 가던 길을 포기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 최우선적인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최우선적인 관심거리는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서 가는 길에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그 길을 가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가는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영광과 위도가 함께 하여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예배참석 성도 정신건강 더 좋다

코로나19 이후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예배 등 종교 활동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크리스천헤드라인스는 최근 미국 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예배에 출석한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보다 정신 건강이 더 좋았다’고 보도했다.



갤럽은 지난달 미국 성인 815명을 대상으로 예배 참석 여부와 성별, 나이, 지지 정당, 가구 소득별 14개 그룹 등으로 나눠 정신 건강 등급을 조사, 분석했다. 조사 결과 미국인의 정신 건강 등급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졌다. 자신의 정신 건강 등급이 ‘우수하다’고 본 사람은 34%로 지난해에 이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갤럽에 따르면 2001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정신 건강을 우수하다고 보는 미국인은 42% 이상이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스는 설문 조사 항목 중 예배 참석 여부에 주목했다. 매주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중 44%가 자신의 정신 건강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출석했다는 응답자는 38%, 아예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29%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건 팬데믹 이전과 이후 정신 건강에 대한 평가다. 매주 예배에 간다는 사람은 2019년 42%였던 것에서 오히려 2020년(46%)과 올해 정신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람 중 정신 건강을 ‘우수’로 본 사람은 2019년 42%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9%로 나타나 13% 포인트나 급감했다. 갤럽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인들은 덜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감정적으로 더 회복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도·묵상 관련 ‘영성’ 투자 증가

코로나19로 기도 묵상 등 영성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에 투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7일 지난해 스마트폰용 영성 도구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1억7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종교 관련 영성 앱은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다. 10년 전 종교 관련 앱에 투자한 벤처 자금은 10만 달러 미만이었다. CT는 2019년 투자자가 신생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투자한 금액이 1만 달러라면 이중 종교 앱에 투자한 금액은 1.30달러였지만 지난해는 3달러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엔 벤처 투자자들이 스마트폰용 영성 도구를 개발하는 소수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1억7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그 중 할로우

와 글로리아피는 각각 5000만 달러, 4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할로우는 성경을 읽는 가톨릭 계열 앱이고, 글로리아피(사진)는 사용자가 매일 예배하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개신교 앱이다.

CT는 종교 앱에 자금 조달이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를 꼽았다. 팬데믹은 정규 종교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실제 사람들은 개인적인 방식으로 영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앱을 활용했다.

투자자들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종교 앱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 것이라 예상했다. 또 종교 앱이 사역을 넘어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 기본 버전은 무료로 제공하고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월 구독료를 내는 방식을 종교 앱들도 적용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미국교회들, 빅데이터로 새 신자 찾기

‘빅데이터’란 대량의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특정 가치로 가공해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1인당 1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선진사회일수록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방대해지고, 그만큼 빅데이터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 이용도를 지니게 된다.



지금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한 분야는 정치·행정이다. 선거에서 빅데이터는 각 캠프의 승리 공식과도 같이 활용돼 왔으며, 국가단위의 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제도와 행정조치 등을 정비해왔다. 물론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도 빅데이터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안겨주는 ‘활용도 만점’의 도구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26일 보도했다.

빅데이터는 각종 공공자료와 통신업체 가입 정보 경제통계치 등을 특정 가치에 맞게 가공해 인구의 이동, 재산 정도, 경제적 능력, 인종 분포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다.

‘글루’는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각종 통계치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 이처럼 각 개인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는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선거 때 빅데이터가 특정 개인, 특정 인종, 특정 집단과 계층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준다면, 글루가 생산하는 빅데이터는 특정 계층과 집단 및 개인이 처한 위기상황을 지도화 한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사람은 종교를 찾기 마련이란 상식이다. 따라서 미국 교회들은 글루가 생산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신자를 찾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빅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선 개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관적인 개념에 불과한 ‘위기’나 ‘정신적 고통’을 정량화하고 객관적 데

이터를 치환하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누가 약물중독에 빠져 있는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이런 데이터는 병원 진료기록이나 은행 계좌 기록, 임금 기록 등을 확보해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될 경우 불법이다.

글루 측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신 구글 같은 홈페이지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나 공황 장애, 파산 등의 검색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빅데이터를 만든다.

미국 교회들은 글루가 제공하는 빅데이터에 근거해 ‘잠재적’ 새신자들을 찾아 나선다. 예전처럼 무작정 길거리 선교에 나서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교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글루의 빅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교회는 미국 전역에서 3만여 개나 된다.

WSJ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선교방식도 디지털화 되고 있다”면서 “신의 영역에도 과학은 필요충분조건인 듯 하다”고 전했다.

팀 켈러 목사 ‘세속문화 대처 5가지 방패’ 제시

“이 세상 문화는 기독교의 믿음과 가치에 점점 더 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학계와 미디어, 정부, 비즈니스, 대중문화, 예술과 소셜 미디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꼽히는 팀 켈러(72·사진) 목사는 ‘기독교에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세속 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목회자이며 신학자, 기독교 변증가인 켈러 목사는 오는 15일 발간되는 미국 기독교 잡지 ‘월드(World)’와의 인터뷰에서 세속 문화에 대처하는 5가지 ‘방패’를 제시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일관성 없는 삶(신행 불일치)이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회개해야 한다. 둘째,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셋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넷째, 우리의 말이 거칠거나 서투르지 않게 살피라. 마지막으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켈러 목사는 1989년부터 2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종교에 적대적인’ 뉴욕 한복판 맨해튼에서 목회자로 헌신했다. 그가 섬겼던 리더마 교회는 세속적이고 자유분방한 도시 한복판에서 보수적이면서도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했다. 목회 현장에서 물러난 그는 지금 체감 4기로 투병 중이다. 그의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외치는 이유다.

켈러 목사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거침없었다. “먼저 두 번째로 큰 위협부터 보면 학계와 정부, 기업계, 그리고 주류 언론을 지배하게 될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다. 이 같은 위협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종교인들의 공개적 신앙고백과 표현, 실천까지도 막게 될 것이다.”

켈러 목사는 이어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위협으로 ‘미국 교회의 실패’를 꼽았다. “주류 교회는 자유주의 정당과 결혼했고, 복음주의 교회는 보수 정당과 결혼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권력의 연합체에 불과하다.” 그는 또 “유명 교회

지도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목자 예수’ 형상 금반지 애저유물서 발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1700년 된 금반지(사진)가 이스라엘에서 발견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지난 22일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예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목자 이미지가 포함된 1700년 된 희귀 금반지와 당시 동전, 도자기 등을 카이사리아 앞바다의 난파된 선박에서 발견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유물은 고대 로마 시대와 맘루크 시대에 짐볼한 두 척 배의 잔해에서 나왔다. 팔각형 모양의 금반지는 녹색 보석으로 장식돼 있으며, 로마 시대 옷인 튜닉을 입은 양치기가 어깨에 숫양 또는 양을 짊어진 문양이 새겨져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는 양 떼(성도)를 돌볼 뿐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과 희생의 목자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선한 목자’로 칭하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다(요10:7-18).

고고학자들은 이 반지의 주인은 초기 기독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발견된 보물 중에는 3세기 중반 시절 사용하던 수백 개의 은과 청동 로마 주화와 600여년 전 맘루크 시대의 은화 상당량을 망라하고 있다. 독수리 형태의 청동 입상과 청동 종, 도자기 및 철제 낫도 발견됐다. 보물이 발견된 카이사리아는 성경의 가이사랴로, 헤롯대왕이 인조 항구를 축조해 안 도시(행10:1). 예루살렘 북서쪽 105km 지점에 있다.

‘오미크론·NFT·눈물’ ...2021년 단어

2021년을 마무리하며 미국방언협회(ADS)가 선정하는 ‘2021년 올해의 단어’ 후보가 발표됐다. 이에 앞서 트위터와 구글은 올해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각각 ‘눈물’과 ‘치유’를 꼽은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1년, 당신의 올해는 어떤 단어로 기억에 남을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미국방언협회(ADS)가 선정하는 ‘2021년 올해의 단어’ 후보에 코로나19 관련 단어로 부스터샷의 ‘boosted’와 백신을 뜻하는 ‘Vax’(백스), 그리고 오미크론이 후보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정치 분야 후보로는 ‘반란’(Insurrection)과 ‘렛츠 고 브랜든’(Let’s go Brandon), ‘TFG’(The Former Guy)가 올랐다.

‘렛츠 고 브랜든’은 지난해 미국 앨라배마주 탈라디가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대회의 해프닝에서 비롯된 신조어다. 당시 관중석에서 ‘옛 먹어라 조 바이든’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잘못 알아들은 기자가 관중들이 ‘렛츠 고 브랜든’을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경기의 우승자가 브랜든 브라운이었기 때문에 생긴 착오였다. 하지만 당시 외침은 바이든 대통령을 모욕하는 표현이었고, 이후 이 표현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반란’은 지난 1월 미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를 표현한 용어이며, TFG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칭한다.

서론. 개혁주의 신학(Reformed Theology)의 개념규정

개혁주의(Reformed)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 말을 즉각적으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할 것이다.

유대교에서 개혁파(Reformed in Judaism)는 정통파 유대교(Orthodox Judaism)와 구별된, 정통적 유대주의 교리, 율법, 그리고 생활 규범들을 바꾸어 현대적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상황에 맞게 수정한 교파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범위 내에서 개혁주의를 규정하는데, 이것도 그 의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개혁(Reformed) 신학이라고 하면 그 기원을 칼빈의 신학과 칼빈의 사상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개혁주의라고 하면 화란과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개혁신학이 있고, 영국으로부터 온 개혁신학의 전통, 또한 스코틀랜드에서 온 개혁신학이 있다.

이 글은 미국에서 스스로 개혁주의라고 칭하는 모든 신학자와 신학을 다루지 아니한다. 칼빈주의라고 말하지만 칼빈주의에 대한 개념규정이 매우 다양하고, 그 해석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정통주의자들도 그들의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칭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개혁주의의 범위는 "칼빈주의 정통적인 개혁신학"이다. 필자가 말하는 개혁주의(Reformed Theology)는 적어도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믿는 신학자와 교회들을 의미하는 개혁신학이다.

1. 미국 초기의 개혁주의는 청교도에서 시작된다

미국 초기에 영국 국교인(Church of England)들이 버지니아는 정착했고, 뉴욕과 뉴저지에는 화란 개혁파(Dutch Reformed) 교인들이 정착했고, 나중에 뉴저지에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인들이 정착했다. 물론 영국의 청교도들은 뉴잉글랜드에 정착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초기 정착인들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가진 자들이었다.

초기 하버드대학의 신학교육의 교과서는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The Marrow of Theology)"이었다. 물론 그들은 라틴어본을 읽었다.

에임스가 케임브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교수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이며, 토마스 카트

라이트(Thomas Cartwright)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에임스는 또한 논리학에서 프랑수아 칼빈주의 위그노(Calvinist Huguenot) 인문학자 및 논리학자인 페트루스 라무스(Petrus Ramus)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에임스의 제자는 요한 코테이우스(Johannes Cocceius)이며 그는 언약신학에 대단히 중요한 글을 남겼다.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일에서 공부하면서 윌리엄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 라틴어 책을 거의 암기했다고 한다.

초기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대

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며(covenant blessings), 만약 불순종하면 언약적인 저주(covenant curse)를 받을 것이라는 개념에 근거로 언약을 강조했다.

존 윈드롭(John Winthrop)의 선상 설교(sermon on board)에서 "왜 우리가 영국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새로운 세계에 왔는가?" 대답은 "A city on a Hill, 언덕위에 세워진 마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것은 마태복음 5:14,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개념을 인용한다.

여야했다. 거듭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부의 관리가 되었고, 그들이 사회언약에 근거해서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관리가 국가(사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의 주체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선출된 관리들은 시민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선출된 관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이 언약을 실제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오직 중생한 성도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영국에서의 경험 때문이며, 영국에서 개인이 신앙생활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저들이 영국에서 아무리 좋은 교회를 세워도 왕이 바뀌어 캐톨릭교도 왕이 등극하면 (메리 여왕처럼), 하루아침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러므로 저들은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를 세우는 것이 청교도들의 꿈과 비전이었다.

초기 뉴잉글랜드 지도자들은 신명기를 많이 인용했다. 저들은 구약의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사건을 영국교회를 떠나 신대륙에 정착하는 것과 비교한 경우들이 많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여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 것을 서약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복을 주실 것을 믿었다(covenant blessings). 그러나 그들이 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언약의 파괴자로서 언약의 저주(covenant curse)를 받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러한 언약, covenant 개념은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개인, 교회,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철학이며, 신념이며, 저들의 문화가 되었다. 이러한 언약사상은 정통적인 칼빈주의 및 개혁신학에 근거한다.

초기(17세기) 뉴잉글랜드 정착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가는 토마스 후크(Thomas Hooker of Connecticut)와 존 코튼(John Cotton of Boston)이다. 이들은 모두 1633년에 같은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토마스 후크의 "A True Sight of Sin"과 존 코튼의 "Purchasing Christ"는 신대륙의 초기 식민지의 청교도 삶의 방식(Puritan Way)에 큰 영향을 끼쳤다. 둘 다 모두 훌륭한 신학자, 설교가, 지도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두 신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은혜언약(the covenant of grace)을 설명하면서, 존 코튼은 택한 자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직접 사역을 강조했다. 토마스 후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룩한 삶을 강조했다. 이 두 사람의 신학사상은 앞으로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KHL0206@gmail.com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역사 (1)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다양한 개혁주의 개념중 "칼빈주의 정통적 개혁신학"으로 범위 제한

청교도로 시작된 미국개혁주의...T. 후크, J. 코튼 신학사상 큰 영향

부분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에 투철한 사람들이었다. 저들은 칼빈주의 사상으로 개인의 삶,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했

청교도들은 영국에서는 더 이상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델 교회와 국가(사회)를 건설하여 모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정부의 관리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권력과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욱 타락하고 부패한 품성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존 카튼은 "국가의 권력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권력의 한계를 알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안전하다"고 말했다.

1639년에 만들어진 매사추세츠 법(The Massachusetts Body of Liberties)은 매사추세츠의 법으로 General Court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이 법에는 시민의 권리는 최대로 보장하고, 정부의 권력의 힘은 최소한 시켰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그리고 투표를 통해 정부의 권력자들을 선출했으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규정한 사회에 대한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파멸할 수 있는 권한이 투표권자들이 시민들에게 있었다.



던 자들이었다. 미국의 초기에는 역사상 가장 분명한 개혁주의 신학과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그들은 그 신학에 기초하여 교회와 사회를 건설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언약(covenant)"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와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다. 청교도들은 "사회적 언약"(societal covenant)을 매우 강조했다. 저들은 사회적 혹은 공동체적인 거룩함(Corporate Holiness)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처음 매사추세츠 주 정부(the Great and General Court of Massachusetts)는 교회의 회원권(세례교인) 가진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시민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정로교회, 베델인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사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움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종님마을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희복 목사)가 주최하는 2022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1월 16일(주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정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17기 찬양인도자 학교

1기 찬양인도자 학교가 1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뉴저지 우리사랑의 교회 문화센터(375 Bergen Blvd 2F Fairview NJ 07022)에서 열린다. 강사는 박종윤 목사.

▲문의: (347)804-4186, praiseyun@gmail.com

'통성경' 목회자 세미나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이 후원하는 '통성경' 목회자 세미나가 1월 20일(목) 오전 10시30분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정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조병호 목사(성경통독원 원장, 하이기쁨교회). 등록비는 40달러. 목하, 사모, 전도사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27일과 28일에는 올랜도 아름다운교회(담임 엄준용 목사)에서 미주통독바이블 네트워크(파운데어 조병호 목사, 대표 정광성 목사) 창립예배 및 컨퍼런스를 갖는다.

▲문의: kwangs.jeon@gmail.com 정광성 목사

동부개혁장신 개강부흥회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박사) 2022년 봄학기 개강부흥회가 1월 31일(월), 2월 1일(화) 오후 7시, 2일(수) 오후 8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성국 학장과 수요일은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담임)가 초청된다.

▲문의: (718)463-7163

예산안 통과 및 연중행사계획 발표

뉴욕교협 1차 임실행위...37만4천불 펜데믹 이전수준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12월 29일 1차 임실행위위원회를 열고 48회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액은 총 37만4천 달러로 지난 2년간보다 증액됐으며 펜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했다.

회장 김희복 목사는 "미스바 회개운동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며 "2022년은 성령의 빛이 가득하며 큰 열매가 있는 새해가 될 것"이라고 축복했다.

김일태 이사장의 개회기도로 시작한 회의는 회장인사, 회원점명(서기 김경길 목사), 총무 경과보고(임영건 총무), 기도(교협 모든 임무를 위하여/이진아 목사)로 진행됐다.



뉴욕교협 1차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교협은 10월 14일 정기총회 이후 이취임식, 말씀세미나, 성경통독 세미나, 미스바회개운동을 했으며, 연중행사는 △신년 감사기도성회(2022년 1월 1-3일, 프라미스교회) △신년 하례(1월 16일, 하크네시아교

회) △전도대회/부활절연합예배(4월) △선교대회(5월) △체육대회(7월4일) △할렐루야 복음화전도대회(7월7일-) △정기총회(10월)로 보고했다.

교협주소록 출판위원회 경과보고는 부회장 이준성 목사(주소록출판위원장)가 210여 교회, 단체가 후원해 6만 달러의 광고후원금을 받게 됐다고 보고했다.

미스바회개운동 보고 및 기도는 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가, 신년금식기도성회 보고

및 기도는 준비위원장 김기호 목사가,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 분비보고 및 기도는 준비위원장 박시훈 목사와 협조 이사회 김일태 이사장, 체육대회 준비 협조는 곽우천 장로(부이사장)가, 제 48회기 예산안 보고는 이광모 장로(회계)가 했으며 황경일 목사의 폐회 및 오찬 기도로 마쳤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이준성 목사 인도로 한재홍 목사가 설교하고 김원기 목사가 축도했다.

한재홍 목사는 "말세의 고통하는 때"(딤후3: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필요한 건 없다.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며 "목사는 어디서 배웠느냐가 중요하며 신학교는 빠르게 가르쳐야 한다. 은퇴목회자로 목회 팀을 준다면 첫째, 바른 어린이 신앙교육을 하라 둘째, 문화학교를 통해 역사교육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미드웨스트, Ph.D. in Music 학위 ABHE 승인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총장 제임스 송 박사)가 지난 12월 20일 미연방정부 인준기관 ABHE로부터 Ph.D. in Music(Music Education) 학위 과정을 최종 승인받았다.

학교 측은 Ph.D. in Music 학위가 있는 학교는 미국 내에서도 많지 않다고 하며, 국제적으로 문화예술 및 음악 분야의 성장과 정과 함께 더욱더 전문적인 음악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교수를 양성하고 다가올 미래의 음악 분야를 선구적으로 이끌 리더십을 위해 이 학위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양인 최초로 미연방정부로부터 정규 종합대학교로 인정받은 미드웨스트대학교를 설립한 제임스 송 총장은 "급변하는 세계 사회에서 글로벌한 인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고등교육국 BPPE와 연방정부 인가기관의 인준을 받아 토렌스에 Site를 오픈해 미 서부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음악 지도자 양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드웨스트대학교의 수업방식은 온 캠퍼스 및 오프 캠퍼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수업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면서, 모두 동등하게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유학비자 SEVIS I-20 혹은 J-1 연구원 비자를 위한 DS-2019를 발행할 수 있으며, 편입도 가능하다.

입학 및 편입 상담은 music@midwest.edu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뉴욕교협이 초청한 증경회장단 연말오찬모임 중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초청 연말오찬모임

지난해 12월 27일 뉴욕교협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증경회장단을 초청해 송년오찬을 가졌다. 이날 증경회장 및 사모,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협은 증경회장들에게 위로금 및 선물을 전달했다.

증경회장단 회장 김원기 목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는 48회기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아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며 축복기도 했다.

경건회는 증경회장단 총무 정순원 목사 사회로 설교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 축도 박희소 목사, 식사기도 안창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김희복 목사는 사도행

전 7장 20절이하를 본문으로 "영적 지도자 모세는 영웅으로 태어나 어머니의 기도로 신앙교육을 받고 고난대학을 통과했다"며 "증경회장들이 남은 생을 모세처럼 영적 지도자가 돼주시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돼 달라"고 말하고 "영적 지도자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증경회장단 부회장 이만호 목사는 "힘들 때일수록 살아남아야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다"며 송년선년 인사를 했다.

(유원정 기자)



신년 금식기도성회 마지막날 집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성회"

뉴욕교협&AG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공동주최

뉴욕교협과 AG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가 공동주최한 신년 금식기도성회가 1월 1일 저녁부터 시작돼 사흘간에 걸쳐 열렸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성회(사58:6)"라는 주제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렸으며 강사는 마원석 목사(오랄로버트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학장).

집회시간은 1일 오후 7시30분, 2일 오후 5시, 3일 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30분 등 총 6회의 집회에서 마원석 목사는 "하나님의 호흡, 살아있는 영"(창2:7), "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은2:1-10), "하나님의 때, 우리의 부르심"(은2:1-10), "이럴 땐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행27:33-37) 등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또 마 목사의 부인 조정자 박사도 "기도의 힘, 무한한 가능성"(막11:24)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3일 오전 10시에 말씀을 전했다.

첫날 뉴욕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는 "A/G동북부지방회와 함께 금식성회를 신년부터 개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묵상을 통해 새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고 환영사를 하고 강사를 소개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설교 후 뉴욕교협과 교계를 위해 합심기도를 인도하기도 했다.

강사 마원석 목사는 고 조용기 목사가 시무하던 여의도순복음교회 천막교회 시절 조용기 목사를 만나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영국 옥스퍼드 선교전문대학원(OCMS) 학장을 거쳐 현재 오랄로버트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첫날 준비위원장 김기호 목사 인도로 시작된 집회에서 마원석 목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이라며 "보내심과 성령 받음은 직결돼 있다. 성령충만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다. 둘째,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가까이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내보내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날 AG동북부회장 이학용 목사 인도로 시작된 집회에서 마원석 목사는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 모자라는 기도에도 하나님께 나아간 자에게 응답하신다"며 "큰 기도라고 힘들지 않다. 기도는 항상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날 마지막 집회에서 마원석 목사는 "사도 바울이 파송받아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라"며 "1) 어려움이 닥쳤음을 인정하라 2) 주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3) 결국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이뤄진다 4) 늘 영적인 기도의 훈련을 쌓으라"고 말하고 "성령충만으로 능력을 받아 미션을 이루고 살라"고 전했다.

성회 인도는 임영건 목사(교협총무), 이준성 목사(교협부회장), 유상용 목사(AG동북부총무)가, 기도는 이재봉 목사, 박차숙 목사, 이창종 목사, 박준열 목사, 하정민 목사, 류승례 목사가 했으며 축도는 김원기 목사, 박국화 목사, 이만호 목사, 김경열 목사, 김남수 목사가 말했다.

(유원정 기자)

보다 신속하고 빠르!!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특수선교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9주년을 기념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LA 시와 카운티 정부의 한인 이민의 날 선포식이 지난 8일 LA 다운타운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미주한인재단 주최로 열렸다

미주한인역사 빛낸 위인 16인 출간

미주한인의 날 119주년 기념행사서 프로젝트 발표

미주한인의 날 119주년 기념 행사가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장로) 주최로 1월 8일 오후 4시30분 밀레니엄빌트모아 호텔에서 열렸다.

이명철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는 애국가와 미국 국가 제창, 축사, LA시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는 “민음의 선조들 아름다운 땅과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며 이민 119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국전쟁을 통해 폐허였던 우리를 위해 미국의 형제자매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우리를 도왔으며 우리 동포들이 미국에 와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요셉, 다니엘처럼 코리언아메리칸을 통해 놀라운 축복이 미국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만 장로는 “오미크론 변종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석호 거주하위원은 “119년전 1903년 1월13일 우리 선조들은 첫 이민 테이프 끊었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미주한인재단이 한인 단체들 중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디추, 미셸스틸박, 영 김 연방하원의원, 케더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 존 리 LA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으며 박영선 부에나파 시장이 축사했다.

이어서 미주한인역사를 빛낸 위인 16인 출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가 발표했다.

이상명 총장은 “2021년 초 이병만 회장이 119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민역사에 길이 남을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미주한인역사를 빛낸 16인 출간프로젝트는 이민선조의 역사를 자녀세대와 미주 주류사회에게 소개하는 것이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잡된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다음세대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자들 중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미국과 한국에서 주목받는 분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열리기 전 시작된 감사예배는 김인수 목사가 개회기도 했으며 로버트A 쉐러 목사(전 수정교회)가 메시지를 전했으며 최순길 목사(남가주교협 경경회장)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나사렛교단 남서부지방회 목회자들이 신년 하례예배를 드리고 있다

심령을 새롭게 변화하자

나사렛교단 남서부지방회 신년하례예배

나사렛교단 한인 남서부지방회(회장 이원규 목사) 목회자들은 지난 1월 3일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2022년 신년하례 예배를 드렸다.

회장 이원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신년하례 예배에서 진건호 목사(남서부지방회 총무)가 대표기도를 한 후 김성대 목사가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엡4:22-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2020 새해를 맞아 우리 목회자들도 썩어져가 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들이 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이어 목회자들이 그룹으로 나눠 신년도 새로운 각오와 결단 등의 제목으로 특별 기도회를 갖고 난 후 목회자들이 서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려: 박준호 기자)



KAFHI주최 아프리카 난민구호 신년평화음악회를 마치고 출연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피바디 출신 평화챔버오케스트라 공연

KAFHI 주최 아프리카 난민구호 신년평화음악회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KAFHI)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난민긴급구호를 위한 평화음악회를 1월 8일 오후 7시 LA 만나교회(담임 남강식 목사)에서 개최했다.

미주기아대책기구 홍보대사 지명현 목사(나성영락교회)의 특별공연으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세계적음대인 피바디 출신들을 중심으로 평화챔버오케스트라가 출연해 Pizzicato Polca, 비발디 4계중 겨울, 헝가리인 댄스 등 격조 높은 곡들을 공연했다.

이번 신년평화음악회는 KAFHI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고통 받는 세계 빈곤 국가들인 동아프리카의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부룬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냐는 지난해 최악의 가뭄으로 앞으로 몇 년간의 농작물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긴급구호식량으로 연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코로나 와중에 내전으로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 한 상황이다. 우간다는 세계최빈국임에도 아프리카 난민을 받아서 수용 중이다. 부룬디는 현재 세계최빈국으로 서구세계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 전체가 큰 난민 캠프와 같은 상황이다. 국제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은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Stay at Field with the vulnerable people” 라는 지침 아래 긴급 구호와 구호 개발사업 등을 진행해왔으며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는 북미주를 팬데믹 기간 동안 16회 대륙횡단을 감행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 지역 국제기아대책의 구호개발활동을 보고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필드에 더 많은 필요가 요청되고 있다고 전하며,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사랑과 나눔이 참 평화를 가져올 희망의 씨앗이 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후원문의: (703)473-4696, shchung@fh.org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기사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이 1월 22일(토)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562)399-2022

세계기독교연론협회 신년하례식
세계기독교연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는 2022년 세계한인기독교연론협회 신년하례식을 20일(목)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 공개홀(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에서 갖는다.
▲문의: (714)484-1190

교역자 청빙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교육부 교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중등부 교역자(풀타임, 6-8학년)는 Youth 사역에 애정과 열정이 있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유년부 교역자(파트타임, K-2학년)는 정규신학대학원 과정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어린이 사역에 애정과 열정이 있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포함), 신앙간증서, 추천서 2매, 최근설교영상이며 제출마감일은 31일(월)까지.
▲문의: (323)227-1400



베다니교회 권사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베다니교회 박영숙 권사 취임식

31년간 섬겨온 임경희 권사에 감사패 증정

베다니교회(담임 송진엽 목사) 권사취임예배가 1월 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렸다.

송진엽 목사 집로 시작된 권사취임식은 박영숙 권사 소개, 권사취임서약으로 이어졌다. 서약은 문답, 기도, 선포, 임직 등 31년 베다니교회를 섬겨온 임경희 권사에게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송진엽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참회의 기도, 교독문으로 이어졌다. 이어 송진엽 목사가 디모데전서 3:1-13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송진엽 목사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요구되지만 이런 덕목들이 의무나 자격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신앙의 요건으로 채워야 하며 결단과 신앙고백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권사는 한국교회 안에 신앙의 연륜 있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직분이다. 소외된 교인들 돌보고 도우며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말도록 하는 평신도 여성리더다. 교회공동체의 어머니 같은 역할로 주어진 것”이라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때를 기다리며 나를 맞춰가는 것이 충성이며 순종이다. 최종 목적지까지 나의 끊임 없는 믿음과 눈물을 흘리면서 내 환경의 삶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으로 쓰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송진엽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터티 신년하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소망소사이터티 2022년 시무식 가져

소망 소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이하 소망)는 지난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소망소사이터티 소망홀에서 2022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를 여는 비전과 활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 회원, 자원봉사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시무식은 최경철 사무총장 사회로 2021년도 활동보고 영상 후 소망중창단이 ‘소망의 노래’를 불렀고,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 목사의 기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김성봉 테너의 특송, 토렌스 조은교회 김우준 담임목사의 신년메시지, 최경철 사무총장의 2022년 10대 계획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금년 10대 계획 중엔 LA 치매케어교실 오픈, 시애틀에 새 지부장설, 제6차 차드 비전트립 등이 계획되었다.

이어서 소망의 조직과 부장단 임명식,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이 있었다. 대통령 자원봉사상엔 최경철 사무총장 사회로 유분자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소망의 자산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사를 표하며 “2022년 코로나로 시국은 여전히 엄중하지만 중단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터티)

산타페상담소 재오픈 감사예배

1월 21일 오전 10시 무료세미나도

지난 2019년 2월 설립된 산타페상담소(소장 김경준 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이하 미주장신대, 상담심리학과 디렉터)는 얼마 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역이 중단됐으나 2022년을 맞아 장소를 미주장신대 본관 1층으로 이전, 새롭게 단장하고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담을 겸해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오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재 오픈 감사예배를 드리게 된다.



는 Thera-Link라는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기사제공: 산타페상담소)

이날 감사예배의 설교는 총현선교교회 민종기 담임목사가 맡게 되며 예배에 이어 상담실 재오픈 기념 무료 상담세미나를 개최한다.

무료세미나는 “팬데믹 시대의 분노조절”을 주제로 한국백석대학교 전형준 교수, “팬데믹 시대의 부모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미주장신대 김경준 교수가 각각 강의한다.

예배와 세미나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모두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참석을 원하면 santafecounseling21@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홈페이지 santafe.org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산타페상담소는 기독교 신앙과 심리학적 지식의 통합을 통한 전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특히 미국의 HIPAA 규정을 준수하

벤츄라감리교회 2개 단체에 후원금 전달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각막이식), 국제기아대책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인준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기이식등록기관인 (사)생명을 나누는사람들(이사장 임석구 목사, 이하 생나사)을 위한 ‘생명의 빛 선물 릴레이’가 연초에 미국에서도 이어졌다.

미주자치연회 미서남부지방회 벤츄라교회(김민영 목사, 미주자치연회 총무)가 한국 보건복지부 장기이식등록기관인 생나사에 각막이식 수술비 3천 달러를 전달했다.

벤츄라교회는 지난해 마지막 주일 당회를 하면서 결산한 잔액을 올해로 이월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기’로 결의했다. 본 교회는 생나사 각막이식 수술 사역을 위해 3천 달러를, 그리고 국제기아대책미주본부(사무총장 정승호 목사)에 2천 달러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영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도 어렵지만 이민교회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코로나 탓에 걸려 모두가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와 교우들의 이런 마음이 생나사 부설기관인 웨슬러사회성화실천본부 서울연회 사무국장 함영석 목사에게 전달됐고 도봉교회 소속인 함 목사가 김민영 목사의 부친인 김진호 감독(전임 감독회장, 도봉교회 소속)에게 후원금 전달식을 부탁해 지난 1월 5일 정오 김진호 목사의 사무실(비전교회세우기운동본부)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김진호 감독은 “벤츄라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

가 아닌데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더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나눔의 선교를 해서 대단히 기쁘다”며 아들 김민영 목사를 대신해 전달식을 하게 돼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날 후원금을 전달받은 생나사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로 확산돼 각막이식 및 수술비 후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 한인교회에서 이처럼 ‘빛을 선물하는 사랑’을 보내와 감사하기 그지없고 눈물겹도록 감동적”이라며 “교회의 훈훈한 손길과 나눔에 힘입어 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서 빛을 선물하는 사역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말로 의지를 나타냈다.

▲문의: (사)생명을 나누는사람들 1588-0692/상임이사 조정진 목사 010-3899-0126 (정려: 박준호 기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한국교회 성도들이 2021년 가장 많이 밀줄 친 성경 구절로 파악된다. 기독교포털닷컴은 “갓피플성경 앱” 사용자 65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에서 지난 27일까지 가장 많이 밀줄 표시한 구절을 집계했다. 갓피플성경 앱은 국내 유료 성경 앱 가운데 가입자

수가 가장 많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내용이 펼쳐진다.

3위는 빌립보서 4장 7절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였다. 갓피플 김희동 본부장은 “빌립보서 4장 6~7절을 동시에 밀줄 친 건 10위권 밖”이라며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였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온전한 주님의 뜻 분별과 같은 신앙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6위는 구약에서 새롭게 부상한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2021년 성경 앱 사용자가 가장 많이 밀줄 친 말씀은 빌4:6

2017년부터 5년 연속 1위, 2위는 마6:33, 3위엔 빌4:7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매년 가장 사랑받은 성경 구절을 집계해오고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2017년부터 내리 5년째 밀줄 친 말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염려말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위로를 담고 있다.

2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인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이다. 앞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

다는 구절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어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였다.

5위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하시니라”였다.

7위는 ‘범사에 감사’를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8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강조하는 잠언 16장 9절, 9위는 ‘두려워말라’로 시작하는 이사야 41장 10절, 10위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마태복음 6장 34절 순이었다.

김 본부장은 “성도들이 밀줄 치며 은혜받는 말씀은 복을 받고 재물을 구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며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며 기도와 감사와 분별을 말하는 구절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씀으로 신년 열자”

온라인 ‘내게 주신 말씀’ 조회수 100만 돌파

2022년 새해를 맞아 많은 성도가 성경 말씀에 의지해 한 해를 시작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김선배)와 크리스천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친구 다모여(대표 이종민)가 함께 만든 ‘2022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하 ‘내게 주신 말씀’)이 2일 조회 수 100만회를 돌파했다. ‘내게 주신 말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말씀 뽑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2019년 처음 시작한 후 이

번이 두 번째로, 함께 모이던 때의 예배 전통을 재현하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취지를 담았다.

성도들이 홈페이지(2022words.com)에 접속해 ‘새해 말씀 뽑기’를 클릭하면 올해의 말씀을 무작위로 뽑을 수 있다. 뽑은 말씀을 이미지로 저장해 소장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지인과 공유할 수도 있다. 최신 버전에는 2019년 버전보다 100개의 구절이 추가돼 총 300개 말씀이 실렸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

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1:19)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엡 6:18) 등 위로와 권면을 담은 말씀들이 수록됐다. 또 영어성경 구절도 함께 지원해 한국어를 포함한 전 세계 크리스천이 말씀을 뽑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

황예찬 교회친구 다모여 PD는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연말 연초만이 아니라 매일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깊은 묵상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단 이후 북한교회 김일성에 조직적 반발”

구소련 측 문서공개... ‘북조선개신교연합노회’ 비합법조직 존속

분단 이후 북한의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김일성에게 반발했다는 내용의 구소련 측 문서가 공개됐다.

문서는 1947년 5월 5일 북한 주재 소련민정청 키셀료프 소좌가 레베데프 당시 소련군정 정치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로, 북한 장로교 우익세력이 주도한 반정부 활동과 친정부 조직인 북조선기독교도련맹(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영향력 약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국방부 문서보관소에 있

던 문서는 몇 해 전 군사편찬연구소가 수집한 뒤 북한사 연구자 윤경섭 박사가 자신의 논문에 인용하면서 알려졌다.

키셀료프는 “우익 개신교는 ‘북조선개신교연합노회’라는 비합법 조직으로 존속하고 있다”며 “20만명이상의 개신교 신자를 포괄하는 조직으로 좌익 개신교가 소수인 것과 대비된다”고 썼다. 이어 “이들은 선교를 표방해 노동당과 인민위원회, 소련군을 반대하는 단체를 조직하려 시도했다”며 “지도자들

도 검거했지만 활동이 약화하기는커녕 강력한 선동의 무기만 쥐어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키셀료프는 “이들은 설교를 통해 정권을 공격하는데 공공연히 정권이 기독교 신앙을 박해한다고 말한다”며 “기독교 청년단체 위원장 조상일은 47년 4월 9일 ‘북조선에서 종교의 자유는 말로만 존재한다. 인민위원회를 반대한다’고 연설했고 체포된 지도자들 ‘순교자’로 부른다”고 지적했다.

장대현교회 풍경도 담겼다. 그는 “청년단체 소속 김두영이 대규모 집회를 제안했다”고 기록했다.

만으로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19 덕분에’ 한국의 유학생, 해외 학생들까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 참여했던 한 청년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땅에 대한 선교 비전을 갖게 됐다”고 고백했다.

박성민 목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많은 영혼을 향해 승리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코로나로 촉발된 많은 도전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을 우리에겐 예수님은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연합기관 통합, 오래 안 걸릴 것”

한교총 통합추진위원회 올해도 계속 통합추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이 한국교회 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대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와의 기관 통합을 두고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동안 협의회에서 이견을 보인 이단 문제 등은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며 (합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교총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소강석 위원장은 지난달 23

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교총 통추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도 계속 기관 통합을 추진해나갈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는 류영모 대표회장, 김기남 이상문 공동대표회장 등도 참석했다.

소 통추위 위원장은 올해 기관 통합을 이루지 못한 이유로 물리적 연합만을 서둘러 추진했다가는 다시 분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세와 흐름은 잡았으나 마음의 연

합과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과정을 거치며 시일 등의 문제로 타이밍을 못 잡았다”며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각 기관과의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회원 교단 내 이단 문제와 세계교회협의회 가입 여부로 이견을 보인 한기총과는 “한기총과 얘기했다. 우리 입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 대표회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내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것”이라며 “하나 됨을 이뤄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 통해 거듭나 한국사회 섬기자”

한교총 한교연 등 연합기관 신년사

교계 연합기관이 2022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한국교회와 자기 갱신과 변혁을 이뤄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다짐했다.

30일 각 기관 신년사에서 따르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은 “세상은 교회를 향해 ‘여전히 교회는 필요한가, 진정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가’라고 묻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악법의 제정과 개정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과 평가는 더욱 냉정해졌고 영향력 또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순전함을 회복하고, 변혁의 제자도를 통해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안으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밖으로는 개혁된 교회가 돼 한국 사회를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 회복의 기대와 함께 세

상에 빛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는 소망도 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장만희 사령관)는 “새해에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도한다”며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정착하도록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세계 교회, 시민사회와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자”고 전했다. 이어 “자유 편향적 정치 이데올로기를 넘어 생명 평화 정의라는 복음의 공적 가치를 지키며 상상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조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단한 믿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회개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어 이 모

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대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오미크론 사태’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종교시설과 관련된 정부의 방역지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기총은 “돌과 감역 사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방면의 방역대책을 다시 설정함과 동시에 국민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기본수칙을 준수해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에는 “교회가 더 높은 도덕성과 영성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선을 앞둔 만큼 올바른 지도자 선출을 소망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한교연은 “반대하는 사람들과까지 아우르고 포용하는 정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인물, 국민 가슴에 상처를 아무만질 지도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님 옷자락 붙들고 눈물 흘릴 때”

예장합동 신년기도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이 6일 서울 강남구 총현교회(한구삼 목사)에서 ‘총회 신년기도회’를 갖고 영적 갱신과 교회 본질 회복을 간구했다.

배광식 총회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것이 남다른 각오와 결단, 배짱이 없이는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면서 “팬데믹 속에 목회자마저

패배주의에 빠져 의기소침하게 눌러앉아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야말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 흘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 자신이 살아나고 교회 신학이 역사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로 나선 김서택(대구동부교회) 김남준(안양 열린교회) 목사는

팬데믹 시대 목회가 어려워졌다고 변명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대를 깨우는 소명자, 불꽃 같은 지도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말씀의 권위가 서는 총회, 정직한 영이 지배하는 총회가 되도록 십자가 보혈로 교단을 덮어 달라고 간구했다. 기도회에는 소강석 전 총회장장과 권순웅 목사부총회장, 장봉생 은혜로운동행기도운동본부장과 전국 노회장, 상비부장 등이 참석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세상의 희망”

한교총 신년하례회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교계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신년사에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냐고 묻는 세계 하나님께

성을 들려주셨다”며 “우리 모두 철저히 새로워져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바르게 섬겨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바른길이라면 다른 교계 연합기관과도 함께 손잡고 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교총 명예회장 이성희 목사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서 정반대로 가며 점점 카오스(혼돈)의 세상이 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서는 혼돈의 이 땅을 우리를 통해 코스모스(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때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세상에 나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가 돼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자”고 권면했다. 참석자들은 구국,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 선교와 연합을 주제로 함께 기도했다.

CCC ‘게더타운’ 서 선교캠프 개최

가상공간에 선교지별 정보 집약, 현지 선교사와 직접 소통

일본에서 북아메리카 최남단 파나마공화국까지 이동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청년들은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내세워 대만 네팔 필리핀 등 각 선교지를 둘러봤다. 이들은 현지 선교사들과 영상으로 채팅하며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던지거나 자신의 선교 소명도 공유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박성민 목사)는 4~5일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과 줌(Zoom)을 활용해 온라인 선교캠프 ‘Overcome’(오버컴·극복하다)을 진행했다. CCC는 지난해 여름 팬데믹 상황에 맞춰 온라인에서도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게더타

운에 가상세계를 만들었다. 이번 선교캠프에서는 선교지별로 가상 섬과 배를 만들었다. 청년들은 항해하듯 섬과 섬을 오갔고, 선교지에 정박한 배에 올라 선교 정보를 얻었다.

이틀간 진행된 선교캠프는 저녁 9시까지 이어지며 활기를 띠었다. 4일 ‘한국에서도 세계 선교를?’이란 제목의 특강 강사로 나선 이흥기 간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국어 공부방 등을 열며 복음 전도에 나선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해외 선교지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되는 만큼 많은 시간이나 비용 투자 없이 그들의 친구가 돼 주고 자연스레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는 것

“기대, 기도, 기적, 기쁨이 삶에 충만한 한 해되길”

예장합신 2022년도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총회장 김원광 목사)가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중계총성교회 별내캠퍼스에서 신년 하례 감사예배를 드렸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예배에는 김원광 총회장을 비롯해 총회 임원과 전임 총회장 등 100여명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 채 참석했다.

김 총회장은 “2022년 벽두에 바라는 것들”이란 제목의 설교

에서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지속속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삶을 모두 삼킨 것만 같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게 했지만,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대감,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팬데믹의 공포에 사로잡힌 세상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세상을 복되게 주도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닌 주께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자”며 “기도와 기대, 기적과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한 한 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특별 기도 시간 ‘합신총회와 합신교회를 위해’,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계선교와 선교사를 위해’ 등의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virtuous cycle) (1)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외국 친구들이 자주 묻는 말은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한국선교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아직도 분단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은 일반적인 외국인들에게는 불가사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를 알면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 실감하게 된다.

좋은 일이 좋은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선순환'이라하고, 나쁜 일이 나쁜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나쁜 일을 만들어 낼 때 '악순환'이라고 한다. 복음의 선순환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복음을 들여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된다. 복음을 받아들인 삶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그 교회는 새생명이 더욱 자라도록 양육하며 변화의 감격이 식어지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한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기뻐하며 주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장벽을 넘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모습은 그런 복음의 선순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삼천이나 더하게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

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를 때에 디아스포라교회 안 디옥교회를 통해 나타난 건강

의 자연스러운 변화는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만 간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싹트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변화를 처음부터 경험한 교회였다. 1970년대에 한국교회는 놀라운 양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부흥과 함께 찾아온 세계선교에 대한 관심은 결국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여행자유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였다. 그것은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당연한 열매였다. 선교는

동성을 잃어가고 "성장보다는 성숙"이라는 좋은 언어로 포장하며 내부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교회 재정 사용처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공동체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많을 때부터 문제를 드러나게 한다. 교회의 선교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으로 변한다. 선교는 교회성장의 과시와 경쟁의 장으로 변하게 될 때에 순수성을 잃게 되고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교회의 교회성장이 둔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적되다가 2000년대가 되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의 파송은 2005년에 타겟2030 운동을 시작할 때까지도 그 기대는 사뭇 달랐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 필요할 선교사의 숫자를 대략 46만명으로 추정하고 한국교회가 20% 10만명의 파송을 감당하자는 포부를 밝힌

원래 교회의 선교역사는 강한 자의 선교가 아니었다. 오라클 약한 자의 선교였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늘 약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요셉의 종살이와 감옥의 자리가 그랬고, 다니엘의 포로생활이 연약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름도 없었던 나야만 장군의 집에 잡혀온 여종을 통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후에 그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흠어진 나그네들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간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들의 모습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의 파송은 2005년에 타겟2030 운동을 시작할 때까지도 그 기대는 사뭇 달랐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 필요할 선교사의 숫자를 대략 46만명으로 추정하고 한국교회가 20% 10만명의 파송을 감당하자는 포부를 밝힌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을 이민자들의 교회들에서 이론 꽤거였다. 이를 계기로 매 4년마다 열린 선교대회는 2016년까지 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과 전 세계한인선교사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선교의 올림픽이 되었고, 미주 한인교회 선교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였다.

세월은 많이 변하여 대형집회의 모습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려는 위기를 팬데믹과 함께 맞이하였다. 그러나 2022년을 맞이하여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까지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것 자체가 한인교회와 이민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소리 없이 사라져만 갈 것 같은 1세대 한인교회들이 선교를 통하여 세대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모임이 계획되는 것이다.

미주한인교회의 선교운동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50대, 40대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충성스러운 평신도지도자들이 함께 모인다. 어린 아이들로만 생각되던 선교사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여 전문인들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20대 30대의 선교사자녀들과 이민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는 이번 선교대회는 역사의 계승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선교는 선순환으로 돌아서든지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것인지 선택하여야 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하는 기회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나의 참여로 선순환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위기의 때에 1세대 한인교회들이 선교 통해 세대계승 꿈꿔 "예수, 온 인류의 소망" 7월11-14일 한인세계선교대회 개최

한 교회의 선교적 모습이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적 교회였다. 1907년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한 7인 가운데 한 사람을 당시 타문화권인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다. 1912년에는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으로 빛을 감췄다며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앞서 가던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낸 이유는 더욱 특별하였다. 중국 선교사의 자녀이자 자신이 2대 선교사로 헌신하신 그 방지일 목사는 유교사상을 전해준 중국에 훨씬 더 좋은 기독교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나눠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그 지역을 처음 선택했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복음을 참으로 알게 된 사람들

부흥의 열매이다. 강력한 순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의 변화가 있다. 이는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하고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가져온다. 이런 교회는 성경을 배움에 열심을 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선교명령에 순종하게 한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새로운 복음전파 지역이 확장되고 들려오는 선교 소식들은 교회의 지속적 부흥과 선교운동의 확장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부흥의 순수한 열매가 인위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때에 교회는 악순환의 고리를 밟게 된다. 교회는 역

것이. 기대와 같이 2005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거의 1000여명 이상 선교사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6년이 되었을 때에 선교사 숫자의 증가는 "0"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한국교회 선교운동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동안 부흥의 열매로 선교사들이 육성되어왔지만 교회 성장을 멈춘 2000년대에 와서 15년여가 지나고 나니 선교사 숫자 정체가 감소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타계 된 것이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줄 것이 있고, 가르칠 것이 있으며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선교를 망치게 하게 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역시 약한 자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다. 1980년대 미주한인교회도 아직 정착되지 못한 이민자들의 교회들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온 이민자들의 꿈이 단순한 아메리칸드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미주한인교회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선교를 논하기 시작하였다. 그 열매는 19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린 해에 올림픽보다 먼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시카고 휘튼대학의 빌리 그래함센터에서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전 세계에 파송 받은 128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하고 지역과 교파를 초월하여 1,500여명의 한인목회자, 평신도지도자들이 모인 최초의 한인세계선교대회였다. 본국의 교회에서도

선교 일기

황은숙 선교사 (엘살바도르)



기쁨은 배가 된다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사회나 교회, 선교지도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저물었습니다. 2022년 새해가 희망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서 희망의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설레이는 첫 감사로 문을 여는 아침, 선교센터 앞 산봉우리가 눈부신 황금빛입니다.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찬양하고 기도하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해지는 석양을 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를 감사하자. 산꼭대기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용기를 내어 으쌰으쌰-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내 나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루의 마지막을 불태우며 지는 붉은 노을을 보며 다시 한번 사명의 불꽃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산위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조차 살랑살랑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네요. 외딴 산골마을이 불편하고 외로운 우릴 토닥토닥 먼저 주시니 감사의 노래

가 나오네요. 2022년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인생의 첫 날로 여긴다면 순간순간이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신년예배를 드리면서 선교한다고 엘살바도르에 와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기억하니 너무 새롭고 뜨거웠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 사랑 첫 마음 첫 걸음을 기억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라스아라다스 헌당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하늘과 맞닿은 정경 지역 산꼭대기 마을에 5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배)를 짓듯 라스아라다스 산꼭대기에 15년 전에 소풍 말린 것과 진흙을 짓어 건축한 구원의 방주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비바람에 녹슬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허물어져가는 벽을 보며 가난한 목사님과 더 가난한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꿈꾸며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우리가 운영하는 월드비전신학교에서 연장교육 중이었던 라스아라다스교회 알프레도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을 외면할 수 없어 신학생들과 함께 방문하여 함께 눈물의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꼬불꼬불 울퉁불퉁 돌짜발 험한 산길을 걸러다 보니 차가 고장 날까 걱정도 되고, 길이 험하고 낭떠러지가 군데군데 있어 위험하여 사고 날까 은근히 무서웠습니다.



가난이 덕지덕지 처량해 보인다고 "오허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나무라며 음식과 생활용품 패키지를 만들어 알프레도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 다녔습니다. 혼자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 할 수 없이 따라다니며 갈 땀

불평, 돌아와서는 그레 참 잘 다녀왔더라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언제나 뜻밖에 찾아옵니다. 신학교에 와서 성전건축을 위해 기도했던 알프레도 목사님이 며칠 후 벽돌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균형을 잃고 길을 걸어가던 알프레도 목사를 덮쳐 암사, 천국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의 소원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아름다운 성전과 사택 화장실을 건축하여 헌당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잔치날에 성도들과 마을 분들을 초청하여 사랑의 선물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기쁨이 배가 된다' 이 교회를 통해 지역이 복음화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며 도와준 귀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hyj0691@gmail.com

위드 코로나...목회적 접근(하)...

(9면에서 계속)

미주에 있는 개혁신앙 목회자라면 개혁주의 신학적 국가관을 가르치며 정교도의 경건한 삶을 회복하고 건국이념에 충실한 국가로 유대 그리스도적 전통(Judeo-Christian tradition)의 성경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함을 가르쳐야 한다. 국가위정자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되 교회가 진영싸움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가 실현되도록 솔선수범하여 나라사랑에 힘쓸 수 있도록(롬9:1-3, 10:1) 성경적 원리들을 따라 가르치길 제안한다.

7)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하나님나라 실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해야 한다.

이런 위기를 보면서 결국 세상 나라는 종말이 있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직접, 간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하나님나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 실현을 위하여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계5:9-10)에 대한 깊이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르칠지 제안한다.

결어

개혁주의 목회자는 분명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계(changing world) 속에 변치 않는 말씀(unchanging Word)을 붙들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상실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transforming) 개혁주의 목회자의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그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추구할 것이다. 아울러 성육신하신 주님을 본받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적응해야 할 것이다.

선교적으로 보면 세계 전체가 글로벌리즘(globalism)되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교차문화적(cross-cultural)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상관문화적 상황(inter-cultural context) 속에서 살게 되는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사명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분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with-corona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점점 더욱 열매를 맺도록 주안에서 성령으로 최선의 수고와 최고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개혁신앙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끝)

younsuklee@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치료하는 여호와(출15:22-27)찬265장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사흘을 걷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디쓴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쓰디쓴 죄의 저주가 변해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출15:26). 사망진단을 받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삶과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지시하신 한 나무'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쓰디쓴 우리의 문제 속에 영접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출16:31-36)찬43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림을 떠나서 '신 광야'로 들어갔고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는 '매일 기근인 곳'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냥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이 내린 것입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요6:48-51). 그 '광야'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장치입니다. 생명이 결핍된 '사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섭취(영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수 반석이신 예수님(출17:1-7)찬38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렘산의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생수가 나와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맛사' 혹은 '므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임마누엘 하시시기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으로는 생존이 절대 불가능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매순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방법은 '자기희생'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고전10:4).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보혈을 쏟아내셨습니다. 죄인들은 찢어진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보혈을 마시고 영생(눅22:20, 요6:53-56)을 얻게 됩니다.

목 전쟁의 승부처(출17:8-11)찬352장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 싸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닻시'(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라고 불렀습니다. 산 아래에서

떨어지는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부는 전력의 여파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금 동역의 기쁨(출18:21-26)찬333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간증하고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출18:1-12). 이드로는 재판에 지친 모세의 모습을 보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거부하는 자들'을 선발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역'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동역할 때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역의 결과는 '평안(출18:23)'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닌 '동역의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갑시다.

토 제사장으로 삼시다(출19:1-6)찬455장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는 누가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즉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인가?'에 대해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벧전2:9)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공모전 / 우수상

책명 :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장소영 사모
(셀터락처치, shelter rock church)



"어디, 미국에 경상도 스테이트(state)가 있었나?" 저자인 스카지로 목사님 부부의 지나온 이야기를 읽는 동안 우습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쩔 우리 부부와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 건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20대를 보냈고, 선교단체에서 만났다. 결혼 후 스카지로 목사님처럼 사역에 모든 힘을 쏟아 붓는 일중독 남편 뒤에서 나는 스카지로 사모님처럼 싱글맘인양 세 아이를 키웠다. 사역의 성장과 부부 사이의 거리는 반비례했다. 어디 일중독 사역자와 독박육아 사모가 우리뿐이겠는가. 농담이 오갈만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사역자가

음을 주신다면 거기서 멈추어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적어 보라고 말이다(p.10). 마침 지조이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독서영성 훈련을 막 마친 뒤였다. 매일 조금씩 정해진 분량을 읽고 독서 일기를 쓰는 훈련이었다. 따로 공책을 마련하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한 독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저자는 열정으로 포장되어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둔감함부터 깨우쳐 주었다. 각 장마다 연결된 간단한 그림과 구체적으로 내면을 점검할 수 있는 검진목록들이 도움이 되었다. 건강하지 못한 표면상의 증상으로부터 내면에 뿌리박은 잘못된 세계관에

일이 반복되는 데도 멈출 수가 없다. 영성을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인식하지 말라는 저자의 말은 주변, 특히 정서를 돌아보기 힘든 사역자 가족들을 자주 접하는 내게 묵직하게 다가왔다. 그러다가 이 책을 남편에게 권하고 싶어진 결정적인 대목을 만났다. 바로 원가족을 돌아보아야 하는 내용이였다. 경험상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자라온 가정과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에 더 민감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수치심을 주거나 부모님을 부정하지는 것이 아닌데 시택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부에게 일종의 금기어였다.

인생의 혁명을 시작하라

크건 작건, 공동체가 깨어졌든 굳건하든, 그 어느 곳이라도 나는 자신 있게 남편 목사를 추천할 수 있다. 문제해결사에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한 남편은 어디서든 말은바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 안 갈 거예요." "여보... 결혼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도 이제 안 나갈래요"(p.29). 스카지로 사모님의 확고한 선언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날 일 같지 않아서였을까. 성장 중이던 교회는 나누어지고 동시에 결혼생활의 위기가 닥쳤을 때 두 분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 부부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도통한 책을 후딱 읽고 얼른 해답을 쥐고 싶었다. 국가번호마저도 82인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 정신은 책 읽기도 초고속 완독이 목표가 되곤 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부탁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읽고, 읽는 중에 성령께서 어떤 깨달

이르시기까지 양파껍질처럼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갔다. 동반되는 고통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 다른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에서 빙거간다. 심연에 깔린 통증들이 정확하게 짚어 내려져 가는 데도 힐난 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원거리에서 원리를 일러주는 성경 말씀과 근거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자의 경험담이 따뜻하고 조화롭게 말을 걸어 오기 때문인 것 같다. 중세에는 육에 속한 것을 부정하게 여겨 정서와 육체를 돌보지보다 고행을 하곤 했다고 들었다. 유교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정서 속에도 이원론의 뿌리가 깊다. 군자가 행할 큰일과 그렇지 않은 일,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란 식이다. 사회적 위치에 따른 불통도 여전히 보인다.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까지 더해져 가면 쓰고 세상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진 채 힘을 소진(burn out)하고 마는 그리스도인이 허다하다. 속사람은 피폐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탈리아 이민가정에서 자란 스카지로 목사님은 원가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먼저 다독인다. 본인의 원가족 가계도 공개를 시작으로 원가정에서 형성된 굳은 뿌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차분히 설명해준다. 아내인 내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던 금지구역이 열릴 것만 같았다. 남편에게 서둘러 읽고 교정해주고 싶어졌다. 오로지 남편에게 적용시킬 생각으로만 가득했는데, 저력이 되어 독서일기를 쓰다가 이상하게 멈추어졌다. 갑자기 나의 어린 시절, 동네 교회가 떠올랐다. 펜을 내려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깨우쳐주실 것이 있나요? 짧은 순간, 교회에서 만났던 여러 어른들의 얼굴과 여러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갔다. 남편의 쓴 뿌리가 원가정에 있다면, 나의 쓴 뿌리는 교회에 있었다.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IL: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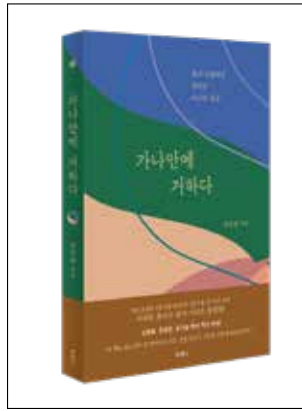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책소개



저자 이진희 목사

“가나안에 거하다”



이진희 목사(웨이코한인감리교회 담임)의 광야 시리즈 완결편 “가나안에 거하다”가 최근 출간됐다.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에 이어 출간된 이 책에 대해 저자는 “나의 광야여행이 끝났다”고 했다.

러 있다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어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에 이를 수 있듯이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십자가가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광야도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 안에 은혜와 축복이 있듯이 광야에도 은혜와 축복이 담겨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

야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살라 6. 바알은 소명이 아닌 소원을 묻는다 7. 다시 광야로 내몰리지 말라 8. 우리도 가나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9.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10. 영원한 가나안에 있대어 살라 등 10개의 주제로 나누져 있다.

‘광야 인생에게 건네는 가나안 일상’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지만 자신은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소개하며 첫 저서 “광야를 읽다” 출간후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려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다”를 쓰게 하셨다고 고백했다.

이진희 목사는 “광야가 십자가라면 가나안은 부활이다. 십자가의 반대는 부활이 아니듯, 광야의 반대도 가나안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광야와 가나안은 서로 대척점이 아니라 맞물

하셨듯 우리도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서는 김영봉 목사(와싱톤사범교회 담임), 민영진 박사(전 대한성서공회 총무),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가 썼다.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외에 1.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 2. 광야에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3. 광야 길만이 가나안으로 이어진다 4. 광야 안에 가나안이 있다 5. 광

또 책의 배경이 되는 성경 속 실제장소 사진과 도표, 성경 속 지리, 문화적 자료 등을 담았다. 총 269페이지. 두란노 발행. 책은 미국내 한국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자 이진희 목사는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 “유대문화를 통해 본 예수의 비유” 등 13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저자 연락처: jinhee1004@yahoo.com

(유원정 기자)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45.가정파괴는 말세기적 사탄의 작전

우리 주변에서 자녀들의 탈선, 가출이나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으로 고민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볼 때 가정선교의 중요성과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사적이나 세계사적으로 조명해 볼 때 애굽-바벨론-페르시아-로마-공산, 민주국가로 흘러 오면서 절대적 왕권과 민족적 국수주의와 패권주의로 점철된 약육강식적인 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

가정파탄의 작전으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교회는 큰 가정이므로 기독교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을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상실과 인간의 개인주의적 욕망, 극단적인 여성권주의, 도시화와 과학의 발달, 대중매체의 악영향, 그리고 사회 환경의 급변 등으로 현대의 가정은 속수무책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

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떨어져 시간을 보내어도 괜찮다. (8)결혼생활에서 논쟁과 말다툼과 불평과 흥잡는 것은 으레 있기 마련이다. (9)이것은 내 집이며 내 돈이고, 내 자녀다. (10)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 (11)남편은 아내보다 우월하다. (12)성적인 의무와 성생활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또는 결혼생활에서 그것은 가장 중요하다. (13)당신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 결혼의 대용물이 있다. (14)자녀들은 짐이 된다.

결혼의 제도는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

가정과 교회마다 가정선교 통해 가정 지키기 운동 앞장 서야 가정문제 발달과 배후엔 마귀사탄의 이간질, 분열, 파괴있어

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국가, 기독교와 비기독교,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싸움의 역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같은 역사적 배후에서 마귀, 사탄은 전쟁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살시키려는 책략을 꾀해왔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으나 이상하게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말살당하기는 커녕 더욱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감을 보고 이에 놀란 마귀, 사탄은 그들의 작전을 바꾸어 강압적인 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식으로 그 작전을 바꾸었고 그 구체적 작전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하여 가정파괴와

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영적,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배후에는 무시무시한 마귀, 사탄의 말세적인 가정파괴 작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레스 마세이는 “결혼에 관한 사탄의 교훈”에서, “사탄의 결혼에 대한 14가지 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당신이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2)당신의 권리를 고수하라. (3)당신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다. (4)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낭만적인 꿈과 같은 생활이다. (5)결혼은 주는 것보다 받는 상황이다. (6)당신은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당신만의 세계를 가져야 한다. (7)결혼관계를 크

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가정을 이루기 전에 결혼하는 것에서부터 마귀, 사탄이 이같이 방해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마귀, 사탄이 말세지말을 맞아 얼마나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지적인 마귀, 사탄의 가정파괴 작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성경적 가정관과 가치관,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상호관계를 하루속히 정립해야 하며 각 가정과 교회마다 가정선교를 통하여 가정 지키기 운동에 앞장 서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데너눔하우스 연말연시 후원금 잇달아

현재 건물구입을 위해 모금 중인 데너눔하우스가 2022년 6월 현재 총61만1천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대표 박성원 목사는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며 “한인도속인 30명이 숙식하며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 자립하도록 돕는 쉽터인 셸터구입을 위해 한

인사회와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2월 17일 메릴랜드 거주 장영숙 권사(1만3천불)를 비롯해(사진) 25일 한국 충청도 흥성 거주 정성건 장로와 정명순 권사 부부(1만불)와 송실대 뉴욕지부 동문회(1천불), 장영

숙(3천불), 양미희 권사(1백불), 강연숙(1백불), 김태민 김애니 권사(1천불), Ben W Ahn(30불), Jung O Kim(50불), IL S Yoon(5백불), 이정공 회장(5백불), Sue Joyce(5백불), 최임선 권사(4백불), 박정운(5백불)과 Kwons Foundation Inc(2천불), Anna Jean(Won Yul)Ma(5백불), 온그린프르클럽(1천2백불), 무명 2명(43,780불) 등이 후원했다.

한편 지난 연말연시 뉴욕일원의 한인교회들의 후원은 다음과 같다.

퀸즈장로교회(2만불), 한인동산교회(1천불), 뉴욕우리교회(1천불), 뉴욕동원교회(5백불), 뉴하트산교회(1천불), 뉴저지침교회(5천불), 뉴저지한무리교회(3천불), 뉴저지소망교회(1천2백불), 뉴저지가가페장로교회(5백불), 뉴저지기쁨의교회(3백불).

▲후원문의: (718)683-8884 (기사제공: 데너눔하우스)

하늘가는 밝은 길 영원한 기독교

저자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어려운 세상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과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북돋아 주려고 이 펜을 들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별을 확실히 하고, 안으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 교파와 교단을 하나로 묶어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고, 또한 각종 이단과 사이비, 유사, 모방, 아류 기독교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효과적으로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학력(學歷) 서울 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물리과) 졸업(B.S.) C.H. Haggard School of Theology(M. Div.)

경력(經歴) 서울대 사범대 신문 주간(4.19 당시) ROTC 1기(포병 1차) 교사(敎師) / 미국 이민 LA 통합 교육국 근무/은퇴 목사(牧師) 현 뉴영혼 박사 성경 연구원 원장

저서(著書) 《오늘의 기독교》(쿰란출판사, 2004) 《해용함의 실상과 유영훈 박사》(큰샘출판사, 2016) 《하늘 가는 밝은 길 - 영원한 기독교》(쿰란출판사, 2021) 《ROTC 1기》(프라미스, 2021)

역서(譯書) 《웨슬레 신학의 사변형(The Wesleyan Quadrilateral)》(한국복음문서간행회, 2000)

책구입 및 저자 연락처 yeongsjyoo@gmail.com Rev. Yeong Sae Jyoo P.O.Box 6267 Buena Park CA 90622

책값: 미국내 우송료포함 \$25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양의문 교회는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 위치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1993년 6월에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제자훈련과 2세 교육과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 온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2022년 정년으로 은퇴하시기에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 목사안수 받은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이민목회 경험자
-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
- 미국내 목회활동에 법적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한글/영어)
- 최근 설교 동영상 혹은 오디오 2편(한국어 및 영어)
-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사진/ 신앙간증)
- 제자훈련 목회 경험서와 목회비전 및 계획
- 추천인 3인의 추천서
- 목사 안수증
-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2년 3월 21일 제출처: haeoheo@gmail.com

기타

- 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아래한글, Word, PDF).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모든 문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청빙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양의문교회 청빙 위원회 The Sheep's Gate Presbyterian Church

주님이 통제하심 인정하고 주께 맡겨라!

라이프웨이, 2022년 교회재정에 직접적 영향 줄 6가지 특정 요인 제시

교회는 대부분의 현금이나 기부를 개인으로부터 받는다. 최근 교회재정 전문기관(Faith Communities Today)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회수입의 85%가 이러한 유형의 현금기부에서 나온다. 또한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의 절반이 현재 경제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재정과 국가경제 상황을 지켜볼 만하다. 2020년 경기침체 이후 미국 경제의 많은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2022년에는 6가지 특정 요인이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6 Economic Factors That Will Impact Churches in 2022).

1. 부채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를 이용해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잔액은 2019년 말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 2021년 9월 현재 58.7%이다. 실업률은 4.8%로 떨어졌다. 16세 이상 미국인 중 현재 노동력은 2020년 2월보다 1.7% 적다.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기업이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6.2% 상승했다. 오르고 있는 가격 중 일부는 교회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수는 실제로 소비자에 대

는 1.3%였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2. 가처분 소득

대부분의 소비자는 2020년에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한 번 쓸 수 있는 소득)과 저축률이 몇 차례 급증한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받았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동안 없었을 수도 있는 재정적 안정감을 줬다. 2021년 5월까지 이러한 부양책은 종료됐지만 제공된 추가쿠폰은 많은 소비자에게 몇 달 동안 도움이 될 수 있다.

4. 임금

COVID로 인해 임금이 급격히 하락했지만 2020년 말에 다시 반등했다. 임금은 2021년 4월 이후 상승했지만 변동성이 많다. 개인소득은 주로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2020년

한 영향을 측정하고 있다.

3. 고용

고용률은 생산가능 인구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코로나 이전 고용률은 약 61%였다. COVID-19 경기침체로 인해 2020년 4월에는 51.3%로 떨어졌다. 2021년 가을까지 57%로 빠르게 반등했으며 그 지점에

에 유지됐다. 2021년 초 최종 경기부양책은 올해 가계에 도움이 됐고, 2021년 5월까지 개인소득은 2020년 같은 달보다 계속 높아졌다.

6. 사회보장

많은 것들이 인플레이션 측정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2021년에 경험한 인플레이션은 사회보장 수혜자가 2022년에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비 조정은 새해 사회보장금 지급에 5.9%를 추가한다. 이는 1982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에 비해 2021년 증가율

사람들이 첫 열매와 현금을 드릴 때 현금에서 두 가지 성경적 원칙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어떤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그들이 수입이 있는 한 그들은 그것의 첫 몫을 줄 것이다. 현금을 드리는 교인들도 보인다. 이것은 정규 수입 외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일부는 편안할 때만 드릴 수도 있다.

두 가지 유형의 현금은 소득이 증가할 때와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때 더 쉽다. 소득이 증

가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년 전과 비교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의 재정 상황과 각 교회의 교인들의 직업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2022년은 교회에 긍정적인 경제 역동성으로 시작해야 한다. 부양수표가 도착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됐다. 강력한 노동시장은 모든 소득수준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거의 모든 교인이 일하면 교회재정에 도움이 된다.

2022년에도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더 높은 가격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현금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교회에 피해를 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 수혜자가 받는 생활비 조정은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사회보장 수혜자는 교회에서 가장 충실하게 현금하는 경우가 많다.

이 끝난 이듬해인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3분의 1 미만의 교회(31%)가 2021년에 현금 증가를 보았다. 이는 표준보다 낮다. 그러나 교회의 4분의 1 미만(22%)이 전년도보다 적은 현금 수입을 받았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은 장기 평균인 23%와 비슷하다.

경제적 불확실성

세계적 대우행을 계속 견디면서 우리가 자신 있게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단기적 불확실성에는 사업을 방해하는 공급망의 문제, 매장 시간과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인력 부족,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위험, 더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이 상황을 다시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포함된다.

장기적인 불확실성 중 하나는 증가하는 정부 및 기업 부채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역사적으로 총 신용시장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20%를 초과하면 경제 산출이 현저하게 저해된다. 미국은 코로나사태로 부채가 급증하기 전에 이 수준을 넘어섰다. 몇 분기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달러를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부채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경고한다(약 4:13-15). 우리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지만 우리는 그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재정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재정 안정성

2021년이 끝나갈 무렵 미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교회재정의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는 수입이 전년도보다 높거나 낮았는지 여부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교회는 2020년 폭풍우가 몰아친 후 평온한 상태에 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입을 가진 교회 10곳 중 4곳(42%)은 '대공황'

세기엔 독후감...

(14면에서 계속)

부모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큰 가족으로 여기고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다. 교회의 어른들은 내가 만족을 드러야 할 또 다른 부모님들이었고, 교회의 아이들은 내가 돌보아야 할 수 많은 동생들이었다. 나 자신의 정서와 필요를 죽이고 과도한 희생을 하게 된 시작점이 된 곳. 끝없는 타인의 요구에 지치고, 편견이 쌓이고, 재능을 발휘하기보다 입에 오르내리지 않

도록 투명인간이 되길 바래왔다.

목회자인 남편과의 결혼은 탈출이 아니라 연장선이 되었다. 남편만 문제와 직면하면 다 풀릴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 내게도 직면하지 못했던 과거로부터의 문제들이 잔뜩 쌓여있었다. 어린 시절의 교회 식구들을 내 속에 넣고 같이 살고 있었으니, 남편의 바람은 괜한 요구로 느껴지고 무덤덤한 반응에는 인정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혼자 자괴감을 느껴온 것이다. 한없이 좋으신 친정 부모님께 내놓지 못했던 감정들, 성장

기마다 필요했던 욕구들이 고스란히 속에서 삭여진 채 남았고 남편에게 잘못 분출될 때도 많았다.

남편은 부모를 떠나오지 못하고 나는 교회를 떠나오지 못한 채 살아왔구나. 미안함이 밀려들었다. 어느새 일기에는 나의 과거와 직면한 내용이 가득 해졌다. 정리가 되면 일기를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 주안에서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다. 아마 비워내기만 했으면 허무했을 것이다. 책의 후반부에는 채워갈 수 있는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카지로 목사님 부부

가 깨어짐을 경험한 후에 수도 원을 돌며 얻은 경험과 고전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 다른 집이 아니었다. 선조들이 남긴 건강한 규칙들이었다.

20여 년 전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 남편과 나의 꿈은 교회성장에 있었다. 그러나 첫째에 성장에만 중점을 둔 이민 교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고 겪으며 큰 아픔을 겪었다. 건강한 분림이 아닌 분열에 의한 교회개혁은 성도들에게만 상흔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담임목회자와 부교역자 간에 끝

없이 반복되는 불신의 고리도 그렇게 형성된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개척하려고 그러느냐 의심 받는 것도 싫었다. 천지개벽할 일이 아니고서는 교회개혁은 하지 말라고 다짐을 했다. 대신 건강한 한 사람을 세우는 일, 건강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역을 하자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방법을 몰랐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시리즈는 현재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훌륭한 도우미가 되어 주었다.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탈해간 교역자와 이별선언을 하는 아내를 통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혁신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과학자처럼 나 중심으로 돌았던 나의 인생이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돌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천천히 깊이 읽으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길 소망한다.



Midwest University 캘리포니아 Site 학생 모집

Midwest University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고등교육국(BPPE)과 연방정부 인가기관의 인준을 받아 토렌스와 어바인 캘리포니아에 site를 오픈합니다

음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usic

- Master of Music (48 Credit Hours)**
성악, 피아노, 작곡, CCM, 교회음악, 악기
- Doctor of Musical Arts (60 Credit Hours)**
Voice, Piano, Composition, Church Music
- Ph.D. in Music (60 Credit Hours)**
Music Education

Midwest Certificate Programs

- Ministry Music Program
- Worship Leader Program
- Media Ministry Program

1차 모집 기간: 2022년 1월 2일-28일까지

MU 부설 - 코너스톤 음악 & 미술 아카데미
Cornerstone Music & Arts Academy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
대상 : 3세 이상

Torrence site: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e-mail: music@midwest.edu

얼바인 캘리포니아 site 학생모집

- Certificate 과정**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평신도를 위한 과정
- 학위과정 (학사, 석사)**
신학 학사과정 BA - Biblical Studies
신학 석사과정 M.Div.
- 박사 학위과정**
D.Min - 상담, 교육, 선교, 목회
Ph.D. in Leadership - Pastoral Leadership
Ph.D. in Counseling Psychology

입학설명회
일시: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오전10시
장소: 240 Goddard, Irvine, CA 92618
*참석희망자는 이메일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rvine site: 240 Goddard, Irvine, CA 92618
Director: Dr. Sung Taek Jung
e-mail: glica@midwest.edu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졸업생은 목사안수 받고 목회 혹은 선교사로 사역 가능

학교소개

-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 인준 (USDE) & CHEA
-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 미국 대학 학력, 학위 인정기관 (CHEA) www.chea.org
- ABHE - Accredited Status
- 국제 항공 안전협회 ISASI 회원대학교.
-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RI) 연구소
- NC-SARA 인준대학교 (www.nc-sara.org)
- MO, VA, Texas, CA 주정부 교육부, 연방정부인가기관 인준받은
- Global Leadership Institute 을 통한 글로벌 리더 발굴 및 양성
- 전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대학교 학위

문의 : 전화 (636) 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